

# 한국평협

2001  
제37호

- 2000년 대희년 평신도대회 자료 모음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 평협** 제37호 · 2001년 1월

- 2000년 대회년 평신도대회 자료 모음 -

발행일 2001년 1월 15일

발행인 여 규 태

편 집 한국 평협 홍보분과위원회

발행처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510호

☎ (02)777-2013, 757-7851

Fax (02)778-7427

E-mail: kan@catholic.or.kr

sera@catholic.or.kr

# 한국평협

2001  
·  
제37호

- 2000년 대회년 평신도대회 자료 모음 -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0년 대회년 평신도대회

4 인사말 대회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여규태
9 화보 사진으로 보는 2000년 대회년 평신도대회	
25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30 교황 축하 메시지	
31 대통령 축하 메시지	
32 격려사 오늘 대회는 뜻깊은 은총의 못자리 .....	김옥균
34 기조 강연 오늘과 내일의 평신도상 .....	박정일
39 장엄미사 강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정진석
44 새 천년기 한국 평신도의 반성과 다짐	
46 가톨릭 대상 수상자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들	
48 2000년 평신도주일 강론 자료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51 선교 강연 대회년의 은총에 선교로 보답합시다 .....	김영대
54 선교 체험 크신 사랑에 작은 정성 드립니다 .....	방경홍
58 선교 체험 본당 차원의 선교 체험 .....	김남식
63 선교 체험 예수님 오늘도 함께 선교하러 나가시지요 .....	배수환
68 선교 체험 담임 선생님까지 세례 받았어요 .....	이은주
69 선교 체험 나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	이순자
71 선교 체험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	장지호
73 수원교구의 선교 사례 교구 선교봉사회를 통하여 .....	정운준

78	특별 기고 내 삶의 고백 .....	현임종
87	세계평신도대회를 다녀와서 공의회로 돌아가자 .....	한홍순
<b>2001년 교구장 사목교서</b>		
92	서울대교구 선교하는 공동체 .....	정진석
96	대전교구 성령과 성체 안에 거듭 태어나는 둘째 해 .....	경갑룡
98	인천교구 야훼의 사랑 영원하시다 .....	나길모
102	수원교구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실천합시다 .....	최덕기
107	원주교구 새 시대 복음화 여정 .....	김지석
109	대구대교구 그리스도와 함께 .....	이문희
111	부산교구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복음화 .....	정명조
115	청주교구 “예수님과 함께” 선교하는 가정 .....	장봉훈
119	마산교구 선교(가족·이웃)의 해 .....	박정일
122	안동교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천년을 .....	김육태
127	전주교구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	이병호
130	제주교구 교회와 세상 안에서의 가정 생활 .....	김창렬
136	군중교구 선교와 쉼의 해 .....	이기현
139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 명단	

## 대회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은총의 대회년 2000년이 저물고 이제 다시 새해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직자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전국의 모든 평신도 여러분께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지난 2000년 대회년은 참으로 은총으로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황 성하께서 1994년 11월 10일 당신의 교서 「제삼천년기」를 통하여 구세주 강생 2000년을 대회년으로 선포하심에 따라 전 세계 교회와 더불어 우리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로 준비해 왔고, 마침내 지난해에 대회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2000년 대회년을 지내면서 우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10월 전국의 평신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평신도대회를 치렀습니다. 평신도들이 하느님의 충실한 자녀로 거듭나고자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개최한 평신도대회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결심하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10월 26일 평신도들의 대회년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27일 '올해의 평신도' 정하상 성인 심포지엄, 28일 교회 운동·단체들의 선교대회로 이어져, 29일에는 마침내 평신도대회의 본대회를 장충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고 400만 평신도들이 '새 천년기 새 복음화'의 주역으로 나설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평신도대회의 주제로 내건 대로, 이번 대회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전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더욱 굳게 믿고 힘차게 선포하자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 천년기 평신도의 반성과 다짐'을 주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 반성과 다짐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 지난날을 깊이 뉘우치면서, 선교야말로 우리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봉사라는 의지를 가다듬으며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외침이 단순히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에 대한 진단의 확실한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예수님의 삶을 얼마만큼 닮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2000년 대회년을 준비하며 전개해 왔던 '새날 새삶 운동'을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입니다. '나부터 새롭게' '참된 가정 이루기' '좋은 이웃 되어주기' '함께 가요, 우리' 라는 네 가지 표어로 펼친 '새날 새삶 운동'은 대회년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결코 중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각자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포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의 사명을 더욱 힘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 계속 되어야 할 실천 방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요한 15.5)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 평신도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이며,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누구든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이다.”(마태 7.21)고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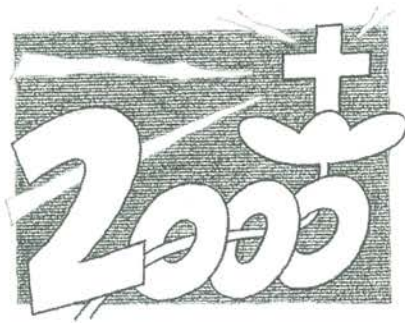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먼저 내적으로 쇄신됨으로써 우리 자신부터 ‘그리스도화’ 되고 ‘복음화’ 되어 이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펼친다면 더욱 많은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요 삶의 초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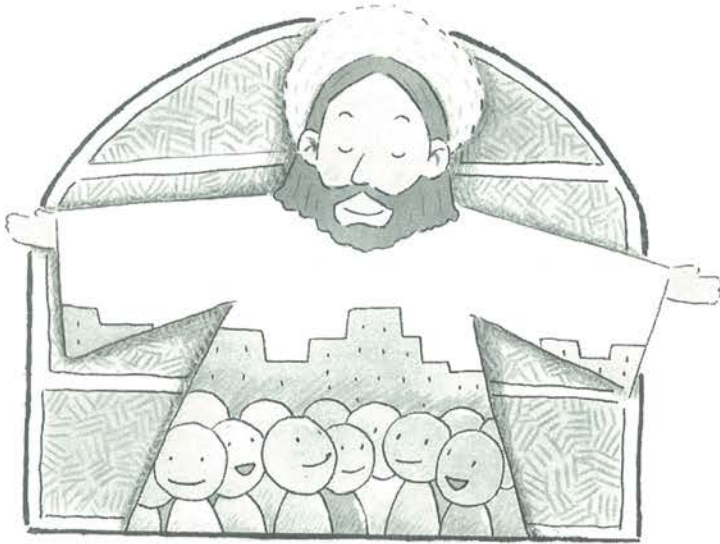
지난 11월 25-30일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평신도대회에서 직접 경험했던 교황님의 장엄 미사 강론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그 한 부분을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더불어 교회는 참으로 평신도의 시대가 열렸고, 복음이 인류의 새로운 빛과 누룩이 되려면 평신도 사도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평신도는 사회의 중요한 신경 마디마디에 복음의 빛을 가져가 그리스도교적 희망의 예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직의 열매는 깊은 영적 생활, 열렬한 기도, 꾸준한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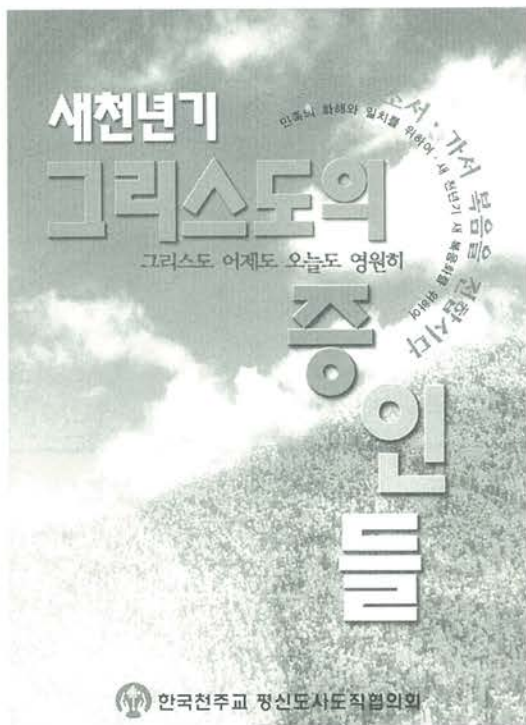
이번에 펴내는 「한국 평협」지에는 주로 2000년 대회년 평신도대회와 관련된 내용들과 각 교구장 주교님들의 올해 사목교서들을 모았습니다. 대회년에 함께 생각하고 나누었던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평신도들이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2000년 대회년의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희년 평신도대회를 계기로  
새 천년기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새천년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어제 오늘도 영원히

증인의 삶

우선, 가서 믿음은  
전환하다  
이제, 불행의 종말을  
위하여 새 천년기 시대를  
위하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00년 대회년 평신도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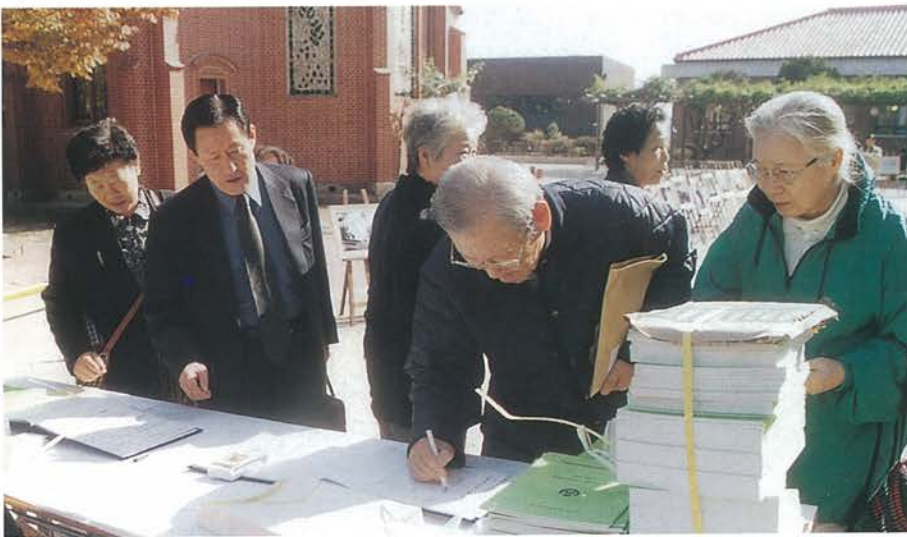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은총의 해에 맞갖은 삶,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철저한 회개와 쇄신이 바탕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 정하상 성인 심포지엄

2000. 10. 27 서울 중림동성당

'올해의 평신도'로 정한 정하상 성인의 삶과 영성을 통해 평신도들의 신앙의 지표를 얻고자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당부에 따라 교회 운동·단체들의 친교와 일치를 도모하고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신도대회의 모든 행사가 선교대회의 성격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근본 사명인 선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대회는 평신도들의 뜨거운 열망과 신앙의 열정이 담긴 참으로 뜻깊은 은총의 못자리입니다.



평신도들은 교회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의 주역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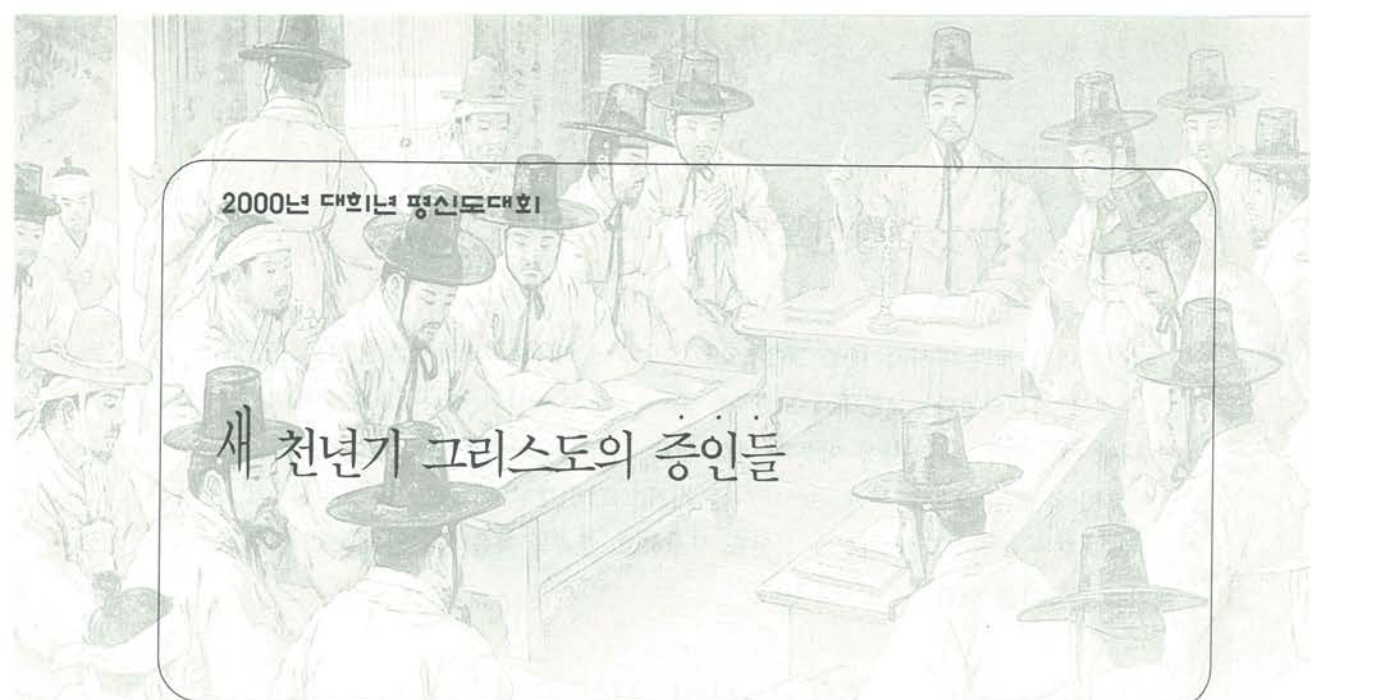


도시인과 농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우리 농산물 직거래는 물론, 농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자 합니다.









2000년 대회년 평신도대회

##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희망과** 은총의 2000년 대회년이 저물었다. 한국교회는 지난 한 해 대회년의 기쁨과 축복을 온 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4개 전국 대회년 대회와 기도 운동 등 다채로운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여규태, 지도 정월기 신부)도 10월 29일 전국의 평신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회년 평신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년을 경축하며 마련된 이날 대회를 통해 400만 한국 평신도들은 교회의 충실한 자녀로 신앙을 쇄신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롭게 투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 평협은 26일 평신도대회 개막 미사(명동 주교좌 성당)를 시작으로 27일 정하상 성인 심포지엄(중림동성당), 28일 교회 운동 단체들의 선교대회(가톨릭 회관)를 잇달아 열어, 2000년 대회년의 경축과 선교 열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11월 5일 서울 서초구청에서는 도농 한마당 잔치가 지난해에 이어 성대히 펼쳐졌다.

한국 평협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대회년 평신도대회의 감격과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땅의 평신도들이 새 천년기 새 복음화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평신도대회 개막 미사

평신도대회 개막 미사가 10월 26일 오후 6시 서울 명동 주교좌 성당에서 강우일 주교 주례로 거행되었다. 교황대사 모란디니 대주교를 비롯하여 신자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에서 참석자들은 이웃과 세상 선교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다짐했다.

강우일 주교는 강론을 통해 “이 미사를 시작으로 진행될 대회년 평신도대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평신도들이 자신의 신원을 성찰하고 새로운 복음화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하상 성인 심포지엄

‘올해의 평신도상’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생애와 활동을 고찰해 보는 뜻깊은 장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한국 평협은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림동성당에서 정하상 성인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교회 평신도 가운데 대표적 지도자였던 그의 활약상을 되돌아보았다. 특히 정하상은 조선교구 설정의 직접적 계기를 이룬 진보적 인물로 성직자 영입과 성직자들의 충실한 협조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교회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늘을 사는 평신도들에게 그의 신앙을 널리 전하고 본받도록 이끌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한국교회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종태 씨는 ‘정하상의 생애와 교회활동’이란 주제를 통해 “정하상은 복경을 9회나 왕래하면서 성직자 영입운동을 끈질기게 전개해 조선교구 설정의 직접적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기해박해 때에는 미리 준비한 호교론서인 ‘상재상서’를 재상 이지연에게 제출해 박해자들에게 당당하게 천주교의 입장을 밝히고 박해를 그치도록 문서로 힘있게 주장하다 1839년 순교했다.”고 덧붙였다.

서 연구원은 “정하상은 뛰어난 호교론서인 ‘상재상서’를 저술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유교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며, “그 결과 정하상은 일찍이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상의 신학사상’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 부산 가톨릭 대학교 교수 한건 신부는

“상재상서는 박해의 부당성을 알리고 천주교의 교리를 풀어 밝히는 부분, 호교론을 전개하는 부분, 그리고 정부에 대한 호소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하상은 상재상서의 저술을 통해 신에 대한 설명보다는 성교(聖敎)의 도리를 밝힘으로써 당시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생각들을 꼬집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이 천주교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며 박해를 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 신부는 특히 “정부 당국자들의 천주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그는 유교 경전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천주교의 정통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원재영 씨(서울대 강사, 규장각 연구원)와 차기진 씨(양업교회사연구소 연구소장)가 참석했으며, 한국 평협 최홍준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았다.



## 교회 운동·단체들의 선교대회

교회의 여러 운동·단체들이 각각의 카리스마 안에서 어떻게 선교에 힘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자 교회 운동·단체들의 선교대회가 10월 28일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선교대회는, 교황 성하께서 1998년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5월 30일)에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전 세계 56개 교회 운동·단체들을 만나시어, 성령의 은사를 통해 평신도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의 여러 운동·단체들 간의 친교와 일치를 강조하신 데 따른 것이다.

한국 평협은 1999년 10월 21일 개최한 ‘대회년맞이 평신도대회’에서 교황님의 권고에 귀기울이는 ‘평신도 선언문’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각 운동·단체들의 회원 2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바로 지난해 평신도대회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선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대희년 평신도대회

10월 29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된 평신도대회는 400만 평신도들이 새 천년기를 맞아 선교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15개 교구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대회의 성격을 띤 이날 대회는 선교 강연과 교구 선교 사례 발표, 본당과 교회 운동·단체들의 선교 체험 발표, 레지오 마리아 선교 촌극, ME 부부들의 무용과 포콜라레 운동의 켄 합창, 성령쇄신봉사회원들의 합창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장엄미사에서 평신도들은 지난날의 소극적인 신앙을 반성하고 새 천년기 새 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7개 항목의 반성과 다짐문을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다짐문을 통해 “이제 우리는 선교야말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봉사라는 투철한 의지를 가다듬으며 ‘새날 새삶 운동’ 정신으로 새 천년 민족의 복음화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란 주제로 개막된 이날 평신도 대회에서는 ‘한민족의 일치를 위하여’ ‘새 천년기 복음화를 위하여’ 등의 문구가 새겨진 대형 걸개 그림과 각 교구와 단체를 소개하는 현수막 30여 개가 내걸려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날 대회에서는 가톨릭 대상과 선교 대상 시상식이 마련되었는데, 선교 대상은 전국 각 교구 평협이 추천한 개인이나 본당에게 수여되었는데, 개인에는 전주교구 윤덕남 세노비아 씨를 비롯한 5명에게 돌아갔고, 본당에는 대구대교구 지산성당 등 7개 본당이 선정되었다. 가톨릭 대상은 사랑 부문 문서운 마리아씨와 장정순 마리아 씨, 문화 부문 박재광 마티아 씨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한편 한국 평협은 지난 6월 25일부터 대희년이 끝나는 2001년 1월 5일까지 민족의 화해와 일치, 새 천년기 새 복음화란 두 가지 지향을 담고 묵주기도 3억 단 바치기 운동을 전개하며 개인의 성화와 충실한 사도직 수행을 기원해 왔다.

## 도농 한마당 잔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한 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 됨을 이루는 축제의 장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한국 평협, 한마음 한몸운동 본부, 우리 농촌 살리기운동 전국본부, 가톨릭 농민회는 11월 5일 서울 서초구청 앞마당에서 '2000년 대회년 도농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길놀이로 개막을 알린 도농 한마당 잔치는 오전 10시 강우일 주교와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추수 감사미사로 시작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수확에 대해 함께 감사를 올린 이 미사에서 각 교구 농민회는 생명농법으로 생산된 유기농 특산품을 봉헌해 성찬의 전례가 지닌 나눔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강우일 주교는 강론을 통해 농촌경제의 어려운 상황,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환경파괴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20세기 물질문명에서 벗어나 사람을 우선하고 자연과 화합하는 사랑과 통합의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여규태 평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하나 되어 생명의 연대를 이룰 때 하느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마당 잔치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대회년 도농 생명의 연대 실천 선언문'을 통해 반생명·반농업적인



제도 반대, 도시생활공동체와 농촌생산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적 삶 실천, 유전자 조작 농축산물 재배거부와 불매운동, 농가부채 해결 노력 등의 실천사항을 다짐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전시회와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다. 행사장에서는 유전자 조작식품 반대와 국산 밀 정책 지원을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며, 국산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을 비교 전시하며 농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함을 홍보하였다.

한편 우리 농촌 살리기운동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이 실시되어 서울대교구 목동본당 도농협력부, 청주교구 괴산군 청천분회 솔피공동체, 광주대교구 진도 신동공동체가 유기농 실천과 도농간 교류, 환경보전에 대한 활발한 활동으로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축하 메시지



교황 성하께서는 대회년 평신도대회가 2000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성하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십니다. 회년은 특별히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복음의 가치대로 회심하고 복음의 가치에 대한 헌신을 새로이 하도록 불린 것입니다.

성하께서는 한국의 신자들이 자신의 세례 성소를 유념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다양한 인간활동 분야에서 용기 있고 설득력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라는 도전을 열렬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성하께서는 그들에게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라는 대회 주제가 모든 한국 평신도들로 하여금 이 중요한 한반도 역사의 시점에서 화해와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하라는 초대임을 깨닫도록 각별히 권고하십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을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님의 보호에 맡겨드리면서 정중하게 당신의 사도적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

김대중 대통령 축하 메시지



올해는 그리스도 강생 2000년을 경축하는 대회년의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대회년 평신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년의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화해와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며 신앙인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대회년은 우리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55년 동안 지속되었던 적대와 반목을 뛰어넘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라는 주제로 신앙을 쇄신하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행사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신앙쇄신 운동을 통하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지역간 계층간 시대간 갈등도 해소되어 국민 대화합을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대회가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새날 새삶의 출발이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 오늘 대회는 뜻깊은 은총의 못자리

찬미 예수님!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의 날이요, 여러분의 축제날입니다. 지난 10월 26일에 우리는 평신도 대회년의 날을 지냈는데 오늘은 그 대회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평신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더욱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참으로 한국 천주교회 역사 안에서 평신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의 진리를 찾아낸 우리 신앙 선조들의 탁월한 지혜와 용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상의 선물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평신도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일궈낸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유산은 전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한국 천주교회 역사의 고유한 자랑이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한국 천주교회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자랑스런 우리 신앙 선조들의 굳건한 믿음과 열심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신앙 선조들이 뿌린 피의 대가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훌륭한 고귀한 유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 교회는 최근까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 증가와 사제성소 증가를 가장 많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평신도 신심단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각 교구의 신학교 건립과 많은 수도회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고 하느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서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영세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상은 새로운 천년기를 맞아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선교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전체 신자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선교 대상지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대회년 평신도대회에서 '선교'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회년 평신도대회는 21세기 선교를 향한 한국 천주교회와 평신도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신앙의 열정이 담긴 참으로 뜻깊은 은총의 못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선교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구체적인 실천과 노력으로 좋은 열매,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정 오늘의 이 대회가 우선 교회적으로는 모든 평신도 단체들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친교와 일치룰 이루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 위에 신앙의 빛을 더욱 확산시키고 교회의 본질적인 선교사명에 매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의 평신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 성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의 주역들임을 잊지 마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십시오.

끝으로 특별히 이번 대회년 평신도대회를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달려오신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뜨거운 환영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모란디니 교황대사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준비하느라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월기 지도신부님을 비롯한 각 교구의 평협 회장님, 모든 임직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오늘과 내일의 평신도상

올해의 대회년을 보내면서 이 뜻깊은 평신도대회에서 평신도 여러분에게 기초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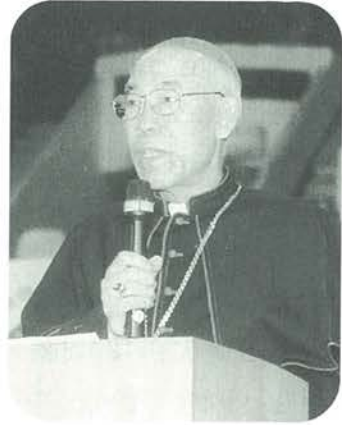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오늘과 내일의 평신도상'입니다. 저는 이 주제 강연을 부탁 받았을 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평신도는 누구인가? 평신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특히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평신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답을 저에게서 듣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의 주제가 바로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 시대를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결의가 보이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새 천년기를 열어가는 이 마당에 시기 적절하게 채택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하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확고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새 세기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대회년을 2개월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를 살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년은 '새 출발의 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 출발을 하는 해. 그것은 회년의 근원인 이스라엘의 회년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스라엘의 회년은 묶인 이들이 석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빛진 사람이 빛을 탕감 받고, 농토를 잃었던 사람이 본래의 자기 농토를 되돌려 받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쁘고 희망찬 새 출발의 해였습니다.



그러한 회년의 정신에 비추어 우리도 이 회년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도 지난날 평신도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하여 그 책임을 다 못하였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평신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점, 잘못된 점 등을 반성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평신도상을 정립하고 새 출발을 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평신도는 누구인가? 평신도는 무엇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이것이 오늘 우리 대회 of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동의를 했든지 아니면 별 생각이 없었든지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례와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며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는 전세계 표준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년 10월 반포)는 그리스도 신자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성숙하고 완전한 그리스도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 교리서는 견진성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견진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며 옹호하여야 할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법도 "견진성사는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 지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은 바대로 교황님께서도 오늘 이 대회에 축전을 보내주시면서,

한국의 모든 신자들이 세례성사로 불러주신 하느님의 소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과 실제생활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을 구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어, 갖은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하느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어 승천하셨으며, 교회를 세우시어 오늘도 모든 사람을 구원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름아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당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신자들의 의무요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자는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야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신자들의 첫째가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안에는 ‘나만 죄 안 짓고 열심히 기도하며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적 신앙 태도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참 그리스도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풍토는 우리 교회를 깊이 병들게 하는 전염병 같은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회년을 맞이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잘못된 신앙 태도를 버리고 올바른 선교의 자세를 가다듬고 새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평신도대회 중에 여러 평신도 운동 단체와 사도직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을 다짐하는 선교대회를 이미 가졌고, 오늘 대회를 마치는 파견 미사에서 또 한 번 ‘세상 복음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평신도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 교회에 희망찬 앞날을 보는 듯해서 무척 기쁩니다. 아무쪼록 그 다짐과 결의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새 시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는 이번 평신도대회에 즈음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특별히 한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저의 이 당부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고 보여주는 사랑의 증인이 될 차례입니다.  
사랑의 증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가지고 전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첫째는, 평신도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할 일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에 떨어진 인간을 구해주시기 위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어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무한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평신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는 사랑의 증인들이 될 차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몸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랑의 증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가지고 전할 수도 없고 말을 가지고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로지 실천으로만, 사랑함으로써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사랑이나마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전파는 허공에 울리는 뿡파리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유식한 설교보다 작지만 따뜻한 사랑이 더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문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전쟁이 없는 사랑의 문화가 꽃피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 특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반세기를 미움과 대결로 세월을 보내온 우리 나라에 화해와 사랑의 문화를 이룩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지만 특히 그리스도 신자들이 앞장서야 할 몫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미움, 전쟁으로 얼룩졌던 20세기를 보내고 사랑의 훈기가 가득한 21세기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평신도 여러분에게 특별히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음화입니다. 혼탁한 우리 사회의 복음화의 역군들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대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사회 복음화’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복음 선포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선포와, 사회를 복음의 정신에 맞게 개조하는 사회 복음화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혼탁한 우리의 사회 현실은 그리스도 신자들, 특히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평신도 여러분의 정화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탁해진 사회 안에서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사회적 사명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의 이 사회 복음화의 책무를 교회법으로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225조를 보면 신자들은 “현세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적시고 완성”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안에는 복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사회 제도와 법, 풍속, 문화 등이 그것입니다. 또 황금 만능주의, 권력의 우상화, 성 문란, 가정 파괴, 윤리도덕의 퇴폐, 극도의 개인주의, 인권 탄압, 폭력, 전쟁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정화함으로써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 찬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 사회 한가운데 살고 있는 평신도들의 고유의 책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 세기에는 평신도 여러분의 슬기롭고 용기있는 사회 복음화 노력에 힘입어 우리 사회가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 온 국민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은총의 대희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 천년기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다짐은 새 천년기를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열어가자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도덕성 회복과 사회 정화의 일꾼이 되고,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되어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이 대회년 평신도 대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강생 2000년을 맞이하여, 하느님이 주신 은총과 기쁨의 대회년을 경축하고 있는 이 때에 전국 차원의 이런 평신도대회를 갖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전국 각 교구 평협 회장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천년기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것은 대회년에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제한된 인원이기는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이나 반가운 일입니다. 남과 북을 잇는 만남과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되어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들을 화해시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에페 2.14).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준 희망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두운 현실 또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하느님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무신론도 팽배해 있습니다. 무분별한 경제개발로 말미암아 환경은 급속히 파괴되어 가고, 세계화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경제적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



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빛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고맙게도, 우리 주님은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 밑에 앉아있는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시며,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십니다. 당신의 부활로 우리 가난한 인생에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어제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 감사드리며 사는 길을 그분께 배우고 그분의 사랑의 삶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로마 5.6).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1디모 2.6).

여러분은 이번 평신도 대회的主제를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평신도의 사명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일생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근방

다음 동네에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마르 1.3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요한 8.11)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용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한 이래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루가 24.47). 여러분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루가 24.48).

우리는 요한 복음 9장에 기록된 눈먼 소경을 압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선생님 저 사람의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에,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9.3)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어둠 속에 앉아있던 소경에게 빛과 희망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인이요 세리인 자개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루가 19.9)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저도 오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한없는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루가 23.34).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러한 하느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상처를 입고 절망하는 영혼에게 하느님의 희망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많은 신자들이 이런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유 배달을 하는 한 자매님은 외로운 노인에게 다가가서 씻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전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어떤 반 공동체에서는 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어떤 구역 공동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반 소공동체 모임에 초대해서 그들과 우정을 나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복음적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평신도 사도직을 기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평신도 그리스도인 10항)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마다의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회년의 취지는 본디 “재산을 잃고 인격적 자유마저 상실한 가정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 평등성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제삼천년기 13항). 이러한 대회년의 정신에 비추어서 우리가 갖는 모든 풍요로움이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공동 자산임을 상기하고, 우리 주위의 소외와 차별을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활동이나 사회정의의 활동이나 사회사목 활동을 통해서 힘없고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줌으로써 알게 모르게 이 사회에 사랑의 문화를 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회년의 정신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느님 자녀로서의 품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본당에서 소공동체와 단체 활동을 통해서 본당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우리의 땀과 수고를 귀하게 쓰시고 놀라운 결실을 맺도록 해주셨습니다.

많은 본당에서 예비신자들이 전에 못지않게 입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풍성한 결실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탄성을 올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루가 10, 21).

예수님도 파견된 제자들이 돌아와서 놀라운 선교 결실을 보고했을 때에 기쁨의 탄성을 올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용기가 없어서’ 어떤 분은 ‘지식이 없어서’ 어떤 분은 내세울 만한 ‘삶의 모범’이 없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망설일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붙잡아 법정에서 끌고 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여러분이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입교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약한 신앙에서 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그 시간에 일러주실 것이니 그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마르 13.11).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다가 힘없는 무릎을 세우고 용기 있게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신앙 체험들을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체험이고 주님께서 힘차게 살아계신다는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증거함으로써 입교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약한 신앙에서 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 동안 선교에 참여한 모든 분들!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 나라 생명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의 사도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루가 10.20)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복음을 전한 협력자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올라 있습니다”(필립 4.3).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십시오(2디모 4.2).

여러분이 바로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복음전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1. 2000년 대희년을 맞아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씨앗으로 이 땅에 교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안배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해 온 선교사들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랑스런 순교선열들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한국교회는 신자수 4백만 명을 헤아릴 만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른 한쪽인 북녘에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깨끗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영웅적인 신자들이 적지 않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민족과 아시아의 복음화를 수행하도록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하느님의 새로운 은총임을 확신합니다.

3. 새 천년기에, 우리의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를 민족과 함께 나누며 살지 못했음을 깊이 뉘우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일치로 실천하기보다는 미움과 분열의 빌미를 키웠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기보다는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기보다 교회 자체의 성장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진정한 친교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4. 이 밖에도 우리는 각자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도 용서하겠습니다.

5. 이제 우리는 선교야말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봉사라는 투철한 의지를 가다듬으며 "새날 새삶 운동" 정신으로 새 천년기 민족의 복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같은 그리스도의 새 천년기 증인"이 되어 새로운 방법, 새로운 표현, 새로운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 우리는 먼저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을 열심히 하여 자신을 성화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이 함께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적극 투신하여 적어도 한 해에 한 사람 이상 입교시키겠습니다.
- 우리는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수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해 자신이 받은 재능을 값있게 쓰겠습니다.
-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민족이 하나 되는 날까지 북한 동포들과의 나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벽과 골을 메우는 일에 적극 나섬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 특별히 오늘 우리는 30년 전 선배 평신도들이 '103위 한국 순교복자 시성운동'과 '신유박해 순교자 시복운동'을 시작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시금 마음을 모아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제창합니다.

7. 우리는 오늘, 대회년 평신도대회를 계기로 새 천년기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이 대회를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복되신 성모님께 맡겨드립니다.

2000년 10월 29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세상을 밝히는 작은 등불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선정한 2000년 가톨릭 대상(17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지난 11월 29일 대회년 평신도대회 본대회 중에 거행되었다.

가톨릭 대상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남다른 사랑의 실천과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며 정의구현과 문화의 창달에 현저히 기여한 숨은 공로자(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82년에 제정, 해마다 시상해 오고 있다.

2000년도에는 사랑 부문 대상에 문서운 씨와 장정순 씨를, 문화 부문 대상에 박재광 씨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했으며, 정의 부문 대상은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3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 문서운 마리아(74세)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실천하며 선교활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분이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열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행려자, 독거 노인, 중풍병자, 시각 장애인 등을 친가족처럼 돌보아왔다. 또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반찬을 제공하기도 하고, 임종을 앞둔 병자들을 보살피주며, 자신도 어려운 여건이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한평생을 오직 사랑의 실천에 바친 분이다. 현재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살고 있다.

### 장정순 마리아(74세)

3대째 가톨릭 가문의 후손으로 70평생을 독신녀로 살아오면서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한 분이다. 교사 출신으로 40년 전부터 고아들을 돌보고 양로원과 나환자촌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는 교구 사제들과 고아 80여 명의 피난생활을 돌보아주기도 하



였다. 부친의 유산과 큰언니의 사업 등으로 모은 많은 재산도 교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다 바치고, 현재 노인요양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면서 불편한 몸에도 시각 장애인 할머니의 눈과 손발이 되어 끊임없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다.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적리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 프랑스 파리 고등음악

박재광 마티아(59세)

학교 지휘과를 졸업하고 KBS 교향악단 단원을 거쳐 삼육대 음악강사를 역임하고, 현재 코리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감독이며, 한국 관악협회 이사, 대구 가톨릭대 음악과 겸임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81년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행사와 1984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103위 시성식, 19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등 교회의 큰 행사 때 지휘자로 봉사한 것을 비롯해 지난 30년 동안 교회 성가대 지휘와 성가 발표 등을 통해 교회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현재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살고 있다.

##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인 동시에, 새 천년기에 맞이하는 첫 번째 평신도주일입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서른세 번째로 지내는 오늘 평신도주일 성서 말씀의 주제는 '종말'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11월의 늦가을은 그 자체로 우리의 스승이며, 위령성월도 후반기로 접어든 이즈음, 우리 가운데 누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 역시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충분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은 문 앞에 이르렀고, 그와 함께 사람의 아들도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이 표현에는 심판과 구원과 심판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대목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지니고 있는 것,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마르 13.31)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보다 영원하며 사람의 아들의 심판에서 기준이 됩니다.

복음서는 계속해서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13.32)면서 항상 깨어있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스도 신자에게 종말론적 기다림은 매일매일의 활동과 일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갖 사물과 이 세상을 결정적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더욱더 합당한 요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항상 깨어 생활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루가 12.49)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사도직의 핵심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불은 우리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고 번져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라고 하셨습니다. 불이 정복하고 휩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듯이 사도직의 힘은 서로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서로서로 사랑하는 것, 즉 '사랑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현존'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서 번져갑니다.

우리 사이에 이러한 서로간의 사랑이 있고, 다른 이들이 이러한 불이 켜져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때 우리는 하느님과 그분의 현존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우리의 것으로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때까지 참으로 우리는 형제와 함께 머무르고, 함께 느끼며, 하나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똑바로 서있어야 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룩한 가정을 이룩하면서 선교의 열정으로 사도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달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라는 주제를 내걸고 '대회년 평신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29일 장엄미사 중에는 '새 천년기 한국 평신도의 반성과 다짐'을 통해 그 동안 가정과 이웃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음을 반성하면서, 새 복음화의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모든 평신도가 이를 실천함으로써 빛과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더 잘 해나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생활과 성사생활을 열심히 하여 자신을 성화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족이 함께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에 적극 투신하여 적어도 한 해에 한 사람 이상 입교시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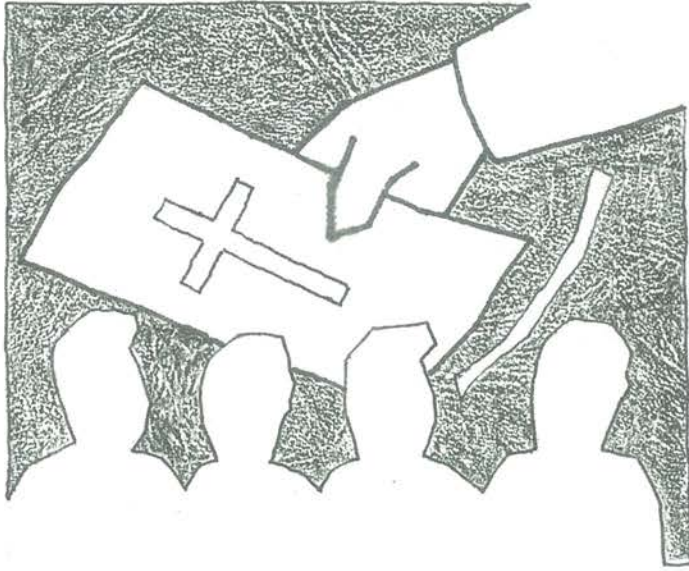
-우리는 해외선교를 위해 기도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수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는 생명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 건설을 위해 자신이 받은 재능을 값있게 쓰겠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민족이 하나 되는 날까지 북한 동포들과의 나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벽과 골을 메우는 일에 적극 나섬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날 평신도대회에서 30년 전 선배 평신도들이 '103위 한국 순교복자 시성운동'을 전개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시금 마음을 모아 첫 번째 전국적인 박해인 1801년 신유박해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기도운동에 모두가 동참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우리는

선교야말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봉사라는 투철한 의지를 가다듬으며  
“새날 새삶 운동” 정신으로  
새 천년기 민족의 복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 대희년의 은총에 선교로 보답합시다

대희년의 감미로운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는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은총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선교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실 선교운동보다 민족과 국가에 더 큰 부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동안 민족의 수난과 불안한 사회의 악순환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국가 번영에 공헌해 온 한국 천주교회는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사랑을 받으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103위 성인을 포함한 신앙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들은 민족 복음화에 매진해야 할 사명감을 다짐해야 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2디모 4.2)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를 실천해야 하느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복음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불타는 헌신과 참여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회 복음화와 민족 구원이란 시대적 부름에 동참하고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은총의 대희년을 기점으로 새 생명의 운동이 성령의 도움으로 불같이 일어나 이 땅의 복음화로부터 세계의 복음화로 이어지도록 복음선교의 별이신 성모님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선교합시다.

교회가 영혼 구원사업에 늦추거나 등한시한다면 사회는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과 평화스런 사회건설을 위해서는 선교운동이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선교합시다! 교회는 선교 분위기에 싸여 복음전파의 열정이 넘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발전되고 이웃과 함께 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년 내내 선교 분위기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선교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어 기쁨과 희망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가로막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마을 저 골목의 모든 가정과 직장을 빠짐없이 방문하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사가 됩시다.

니다. 이런 교회에 주님께서서는 축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상이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불타오르는 갈증 속에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운동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만이 그 성스러운 구원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설문조사에 국민들은 천주교를 선호하고 가까이하고자 하고 찾고자 합니다.

선교를 가로막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선교에 투자하십시오. 이 마을 저 골목의 모든 가정과 직장을 빠짐없이 방문하여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사가 됩시다.

하느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으신(1베드 2.9) 여러분!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1디모 2.4). 목자 없는 군중을 보시고 나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가엾소.”(마태 15.32) 하시는 그리스도의 걱정을 우리 자신의 걱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창설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고 유언하심으로써 자녀된 의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느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주저함 없이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라(1요한 3.18)고 하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계서는 신앙의 위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선교라고 하

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작은 교회입니다. 하느님의 교회인 우리들은 선교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선교하려는 목적이 없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활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가서 만민을 가르쳐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생명을 자유롭게 바치시기 전에 이렇게 사도적 직무를 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필립 3.13)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분을 만나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새 생명의 빵(요한 6.35)을 가슴으로 영하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된 도리가 아니며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선교는 하느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넘치는 은총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선교사명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위탁받았으니 투철하게 증거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는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착한 자녀가 됩시다. 우리들은 주님의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은 이웃과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새 생명의 기수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선교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든든한 희망을 두신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민족 복음화의 기수가 됩시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사도 4.12).

## 크신 사랑에 작은 정성 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

저는 대구대교구 수성본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방경홍 가브리엘입니다. 저는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40년 동안 대구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일년 신수를 보러 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일년에 한두 번 집안 안택굿을 할 때면 온 동네가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대느라 일년 내내 번 돈을 몽땅 쓸어넣곤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무당 생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친구들을 피하며 어두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늘 집에만 들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해 과학교사가 되었습니다. 과학 선생님께서 비과학적인 어머니의 무당생활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나 친구가 알까봐 가슴 조이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당을 그만두라고 사정했으나 어머니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섬기던 신을 배반하면 집안에 환난이 일어난다고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저의 집 대문에는 신대가 높이 세워져 있었고 붉고 푸른 천조각이 바람에 펄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아지자 여동생이 또 어머니 대를 이어 신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일로 가슴에 한이 맺힌 저는 여동생이 어머니 대를 이어 또 무당이 되려는 줄 알고 우리 가정을 미신으로부터 지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한 친구가 미신을 없애고 마귀를 쫓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솔깃해서 어머니에게 성당에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필쩍 뛰면서 헛말이라도 그런 소리는 입에 담지 말라 하시며 절대로 성당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가정을 미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내가 당한 고통을 내 아들딸에게는 절대로 물려줄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천주교 입교를 권유해 온 동료 교사 유 베드로를 따라 저는 수성성당에서 1987년 12월 20일 어머니 몰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세 후 혹시 집안에 어머니 말대로 우환이나 있으면 어쩌나, 솔직히 겁이 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성물들을 문갑에 숨겨두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의료보험증을 찾던 어머니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아들이 천주교 신자임을 알게 된 어머니는 무척 실망해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식사도 그르고 두문불출했습니다. 힘없이 처져버린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내가 세례를 받아 어머니에게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저는 대구 남산동에 있는 성모당에 가서 매일 새벽 묵주기도를 드리며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 성모님께 기도하고 새벽 미사에 참례한 뒤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 온몸이 가려운 병이 생겼습니다. 긁고 또 긁어 상처가 덧나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까마는 병원의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묵주기도 중에 성수가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니 자꾸 그 생각에 집착되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날은 퇴근하는 길로 바로 성당으로 달려가서 본당에 있는 성수를 한 병 떠다가 감실 앞에 놓고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와서 어머니에게 피부병特效약을 가져왔다고 하니 어머니는 어서 발라보라 하시면서 서둘렀습니다.

탈지면에 흠뻑 묻힌 성수를 어머니 몸에 갖다대자 깜짝 놀라시며 “아이고 뜨거워라! 야, 이놈아! 내가 나를 이렇게 쫓느냐. 이 집에 성신이 들어와서 내가 올 데 갈 데 없더니 네가 나를 기어이 이렇게 쫓는다는 말이나!” 하고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사건에 너무나 놀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아내와 교리 중인 아들딸들을 방으로 불러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신비 3단계 바치는데 제 몸이 불같이 달아오르고 신비한 압력을 받으면서 성령이 마귀를 쫓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큰소리로 영광의 신비 5단을 다 바치고 나니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평소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뭘 발라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시기에, 성당에서 가져온 성수라고 어머니

께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과연 성신이 있구나! 내가 40년을 무당을 해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나도 성당에 갈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세 후 겨우 6개월밖에 안된 저에게 무슨 마귀 쫓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이는 저의 믿음을 굳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저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성당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시던 어머니께서 스스로 성당에 가시려고 하니 우리 모두는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대구 수성성당 후반기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교리를 공부하시던 중 몸이 몹시 편찮으셔서 교리 도중에 세례를 받으시고 40년 마귀 사슬에서 벗어났습니다.

문병 온 신자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다가 홀연히 선종하셨으니 영세 후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일로 하느님이 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된 저는 그 해 우리 가족 모두와 여동생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척까지 권면해서 2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 하느님을 모르던 우리 집안에 일대 종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를 믿으면 집안에 환난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던 모든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인 것을 친구나 제자들이 알까봐 가슴 조이던 40년 세월이 저에게는 시련과 단련을 위한 은총의 시기였고, 이제는 어머니 일을 온 세상에 알리어 전교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니 암흑의 시대는 지나고 광명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정이 주님을 알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자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동안 학생들을 전교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교사로 봉직하던 학교에 호감이 가는 착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천주교 입교를 권면하다가 그 아이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철저히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처럼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참된 진리의 종교를 가르쳐주어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천주교 신자인 동료 교사들에게 함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우리 학교가 종교 재단의 학교도 아닌데 공연히 종교 이야기를 꺼내 물의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면서 모두 반대했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가브리엘, 나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평생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본당 교리반 개강을 앞두고는 더욱 열심히 권했습니다.

는 당신만을 믿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저 혼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내가 평생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본당 교리반 개강을 앞두고는 더욱 열심히 권했습니다.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물려온 학생들 중 부모님과 면담을 거친 학생 19명을 본당 교리반에 등록시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친 저는 용기를 얻어 다음 학기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시도해서 23명을, 그 다음 학기에는 15명의 학생을 교리반에 인도했습니다.

이때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노고도 컸습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은 저와 같이 토요일 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 각자의 승용차로 학교 앞에 와 기다리다가 조를 짜서 학생들을 태워 본당에 데려오고, 교리공부가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이 불평 한마디 없이 저를 도와 ‘학생들 차 태워주기’를 함께하니 저는 이들이 바로 주님이 보낸 천사들로 보였습니다. 영세한 학생들을 소년 브레시디움에 가입시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굳게 하도록 인도했습니다.

저는 영세 직후 레지오 단장이 되어 만 12년 동안 4개 브레시디움을 창단했고, 단원들과 함께 300명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구 수성본당 선교분과장으로 은총의 대회년을 뜻있게 맞이하려고 본당의 냉담자를 일제히 조사해 756세대 1200명에게 성사 권유 편지를 세 차례나 보냈습니다. 이 결과 냉담자 250명이 성사를 보았고 올해에도 전반기에 83명이 성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를 선교의 도구로 불러 써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본당 차원의 선교 체험

저는 본당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던 경험을 선교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새 가족 찾기 운동'을 해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단계별로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서 예비신자 환영식을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환영식 때마다 예비신자 수가 줄어들어 평균 50명 선에 불과했으나 이 운동을 펼침으로써 1차 운동 때에는 무려 3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했으며, 환영식 당일에는 190여 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7개 교리반이 편성되어 170여 명이 9개월 동안 교리를 충실하게 받고서 주님의 새로운 자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 셈이지요.

연말에는 '쉬는 교우 모셔오기 운동'을 펼쳤는데, 전년도에 비교해 판공성사울을 20% 증가시킴으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뒤이어 '2차, 3차 새 가족 찾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으나 공교롭게도 본당에 다른 특별한 행사들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운동을 활발하게 펼치지도 못한 채 예비신자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참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곧 1차 새 가족 찾기 운동 때에 대대적으로 뿌려놓은 씨앗을 거둬들이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을 펼치게 된 동기는 당시 본당 주임 정월기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인천 교구 만수1동본당에서는 선교운동을 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우리 본당에서도 그곳에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하고 권유하시면서, 선교분과장을 맡고 있던 저에게 몇 분 모시고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본당을 찾았더니 마침 신부님께서 밖에 나와 계셔서 선교 담당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뒤 용기를 내어 저희 본당 주임신부님을 찾아갔더니 신부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자료들을 설명드렸는데 우리 본당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 새 가족 찾기 운동을 실시해 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선교운영위원회와 의논하여 선교운동을 '새 가족 찾기 운동'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본당 소공동체 지역인구 분포율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예비신자 환영식 때마다 자료들을 파악하고 구역별 봉사자 활동상황을 분석하면서 단계별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먼저 제1단계 준비단계로 전신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왜 적극적인 선교운동을 해야만 하는지를 주일미사 공지시간 때마다 다 알리면서 선교 분위기를 조성시켜 갔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가두 선교를 하면서 설문지 250여 통을 받아보았는데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를 희망하느냐?"는 물음에 "글쎄요. 저는 천주교를 나가고 싶습니다."라고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응답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천주교에 나가고 싶었지만 천주교에서는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비신자들의 입교 신청서를 파악해 보니 25%가 본인 스스로 천주교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개신교에서는 하루에 몇 번씩 찾아와서 전교를 하고 가는데 천주교에서는 한 번도 안 오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선교 전선에 투신할 때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선교운동을 전개하면서 영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먼저 성령 세미나와 성서 세미나를 통해서 영적인 무장과 말씀의 무장을 하여 악의 세력과 싸워 하느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내실을 튼튼히 해나갔던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오늘날 혼자의 몸으로 선교를 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선교는 바로 교회 차원에서의 영적, 인적, 물질 자원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지원을 해야만 선교가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2단계로 준비과정에서 전신자가 선교 전선에서 나가 싸울 전교지와 각종 홍보물을 지원해야 하므로 선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기도문을 준비

하고 전교지들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지원했습니다. 또 9일 기도와 40일 금식기도, 21일 고리기도를 구역·반별로 그리고 레지오별로 실시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선교운동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함으로써 활동하고, 기도로써 열매를 맺으며 결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선교운동은 기도의 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교용 제작물들은 전신자 포스터 1인 1장 붙이기와 본당 알림지 10장 전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신자 대상자에게 드릴 공중전화 카드와 신부님께서 드리는 사목 초청장과 볼펜도 준비했고, 전교용 소책자들과 입교 행사를 알리는 거리에 부착할 플래카드, 개인이 의무적으로 소지하는 선교임무 카드 발행, 차량에 부착할 스티커 제작뿐만 아니라 성당에서 명찰 달기 운동을 실시하며 전신자가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단계 실행 총력 단계로,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선교 전선에 나가 실질적으로 예비신자 대상자를 찾는 것인데, 선교 파견식을 갖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실감케 했습니다. 선교 파견 선포식 전에 전교활동 요령을 활동극으로 꾸며 1개 구역이 보여주고 나서 거리에 포스터를 붙이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플래카드를 설치한 뒤 구역별 피켓을 들고 어깨띠도 두른 채 가두 선교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4단계로, 결실 단계에 이르러 각 구역별로 입교 희망자 신청서를 받아 상황판에 구역별로 대비표를 만들어 선의의 경쟁을 갖도록 하여 선교의 열정을 한층 더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비신자 환영식을 준비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실제로 체험했던 평가를 해가면서 대대적인 공동체 잔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선교 우수구역과 우수자에게 교구장 주교님의 표창장과 상품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저의 선교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차 새 가족 찾기 운동 때에 저는 5명을 인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명을 더 함께해 주셔서 6명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가족 5명을 인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천주교 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점심식사 후에는 이웃 사무실 직원들을 불러놓고 차 한잔씩 나누면서 천주교에 대한 가벼운 자랑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의 여직원 한 분이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자주 대화를 나

처음 선교를 하여 실패했다고 해도 그 실패 자체가  
 성공을 했다고 만족감을 가지십시오.  
 선교활동을 하면서 다소의 비웃음이나 화내는 모습을 보지 않을까 하는 심정.  
 내 신앙생활에 대해 비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되는 체면들은 떨쳐버리십시오.

누었습니다. 어느 날 여직원이 성당 가까운 역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벼운 선물을 들고 방문하여 “이번에 저희 성당에서 예비신자 환영식을 갖게 되는데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반갑게도 흔쾌히 교리반에 나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함께 입교 신청서를 받았습시다.

마침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터라 할머니께도 전교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신지 여쭙었습니다. 그러니깐 절에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성당에 나오시면 천상에 가서도 평화와 안식이 있어서 지금의 생활이 평안하시다고 말씀드렸더니 절에 나가는 사람도 성당에 나갈 수 있는냐고 물으시더군요. 성당에 나가시려면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사진을 한 묶음이나 가져오시면 서 예수님께 보여드리려면 제일 예쁜 사진으로 신청서에 붙여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자매님 남편이 퇴근하셔서 오시더군요. 그분도 천주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다면서 신청서를 써주셨습니다. 예비신자 환영식에 일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9개월 동안의 교리를 충실하게 받고서 5명 모두가 주님의 새로운 자녀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저희 본당에는 평신도 30명을 주축으로 한 교리교사협의회가 있는데, 교사 1명이 15-20명의 1개반을 담당하고, 방문교리 교사는 임산부나 환자, 시간이 일정치 않은 사람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부부가정 교리교사는 영세를 준비하는 초등학생과 부모를 함께 만나 대화식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교리는 1개월에 한번씩 신부님께서 담당하시며, 교리교사는 예비신자 관리 카드, 교리반 출석과 미사 참여를 파악하고, 구역·반 모임에 동참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가정방문을 통해 어

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리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면 일찌감치 대부분을 세우고, 영세 전에 단체를 소개하며 1인 1단체에 가입토록 했고, 영세 후에는 교리반 동기생 모임을 갖도록 주선함으로써 탈락자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천주교회에서 현재까지의 선교는 다분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선교운동을 실시했던 본당들도 경험하셨듯이 저희는 선교는 더욱 발전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동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촉진해 나가야만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던 간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역이며, 바로 지금 선교를 해야 하며, 누구를 만나던 선교 대상자라는 의식을 갖고 선교사명으로 불타야 하겠습니다. 처음 선교를 하여 실패했다고 해도 바로 그 실패 자체가 성공을 했다고 만족감을 가지십시오. 일부 신자들이 용기가 없어서 또는 선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을 움츠리는 경향을 많이 보아왔는데, 선교를 하면서 다소의 비웃음이나 화내는 모습을 보지나 않을까 하는 심정, 나의 신앙 생활에 대하여 비판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예상되는 체면들이 있다면 반모임이나 레지오 회합 때에 토의하면서 떨쳐버리십시오. 지금의 소공동체는 천교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걸음 나아가 선교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오 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마태 7.21)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은 곧 전교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의 순교란 목숨을 바쳐가면서 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아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이 선교의 결실을 얻으리라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앞장섭시다.

## 예수님 오늘도 함께 선교하러 나가시지요

저는 1984년에 남편보다 먼저 영세했고 남편은 13년 후에 세례를 받아 성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가정의 기쁨도 잠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세 자녀의 학비 문제,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보내드려야 하는 일, 종가집 맏며느리로서 겪어야 할 층층시하의 시집살이는 제 작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알아먹었고, 숨통을 조여오는 경제적인 고통은 연속되는 삶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세상 걱정을 모두 짊어진 양 저 깊은 곳까지 빠져들어 악몽에서 허덕일 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상봉동성당에서 분가해 망우동성당으로 옮기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선교분과위원장, 꾸리아 서기, 브레시디움 부단장, 구역의 반장으로 임명하시어 숨 쉴 시간도 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물론 이 모두가 제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지요.

그런데 또 난데없이 본당에서 '새 가족 찾기 운동'을 펼치며 저를 구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었지만, '세속 것만 좇고 사는 내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우셨으면 당신 사업에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래! 내가 지금에 와서 무엇이 두렵고 무서우랴! 나와 가족 모두의 목숨이 하느님 것인데 세상 것은 덤으로 주신다 하셨으니 신앙의 그릇을 준비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보자. 되도록 주님이 놀라실 만한 큰 그릇으로 준비하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기도로 지나거나 "주님,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갑니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늘 그 말을 중얼거렸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 실성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지난 1998년 10월부터 적극적인 선교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첫 가두 선교에 앞서 반장들은 아주 작은 저를 보고 앞에 나가 시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자신있게 앞에 나갔으나 너무도 엄청난 현실의 큰 좌절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홍보용 전단지 한 묶음이 100장. 한 손에 영겁결에 들고 나왔는데 사시나무 떨리듯이 도둑질이라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정신이 혼비백산 흩어지며 쓰러질 듯 현기증이 났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저 신호등이 파란 색으로 바뀌면 많은 인파가 건너올텐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망신스럽고 볼장 사나운 일입니까?” 하고 예수님과 성모님만 마구 불러댔습니다.

순간 왼쪽 소매 끝에 무엇인가 스쳐가는 듯한 느낌과 차가운 기가 나의 몸을 에워싸는 느낌이 들면서 거의 놓쳐버릴 만큼 땅으로 기울어진 나의 왼쪽 손등에 마찰이 일어나며 아주 가뿐하게 올려지며 받혀지고 정신이 한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역 내의 건널목마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서서 「천주교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전단지로 가두 선교를 펼치는데, 저편 건널목에서 건너오는 인파가 모두 선교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반장들을 뒤에 두고 내가 시범적으로 앞장서서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선교하니 시범이 무엇입니까? 어느새 조용하던 우리 반장들이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교 전단지를 바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내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겸손과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로 대했다면 아마도 왕비 대접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가두 선교를 하다가 말쑥한 신사복 차림의 한 중년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신사분은 저에게 대뜸 “아줌마는 선교하기 위해 삽니까?” 하더군요.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 대답하시기를 “사랑하기 위해 삽니다.” 그랬더니 “사랑에도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해요.

영똥한 질문을 받은 저는 이렇게 말했지요. “예, 하느님의 사랑이지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보려는 사랑이지요.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떤 마음이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 모든 것, 즉 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아줌마들은 천당 가겠네요. 믿지 않는 우리는 지옥 가구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인간이 다 알 수 없어요. 성당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천당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거리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나요?”

“예, ‘이런 짓’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분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세상을 살아도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 살면  
세상이 천당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신앙을 갖게 되면 꼭 천주교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신사는 “예, 그래요. 개신교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모두 천당 간다던데 아줌마야말로 진실한 대답을 해주신 것 같군요.”라고 말하더군요.

“이 세상을 살아도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 살면 세상이 천당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신앙을 갖게 되면 꼭 천주교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갈지도 모른다면 바삐 건널목을 건너는데 그 뒤에 대고 제가 “예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마세요!” 하고 소리쳤더니 “빨리 갖도록 노력할게요!” 하더군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벌써 어디선가 그 신사를 예비신자로 선택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가두 선교에서 많은 영혼을 구하며 외인 가정 방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범위가 큰 만큼 저는 각 반장님들의 번지 수 내에서 활동하게 하고 저와 부구역장은 반장님들이 못 미치는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 방문 때부터 저와 반장 8명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못하겠더군요. 반장들은 어깨띠와 홍보지를 다 내던지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나? 하루 종일 미싱을 밟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 짓을 하나?’며 돌아갔습니다. 저 또한 깊은 좌절감에 빠져 맥없이 집에 돌아왔으나 늦은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만 부르며 도움을 청할 뿐...

다음날 아침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뵙고 단판 지으리라고 생각하며 10시 미사를 봤습니다. 거양성체 때 성체를 쳐다보는 순간 신부님 뒤에 있는 큰 십자고상의 예수님 머리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저혈압으로 빈혈이 있어 잘 못 보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본 순간 역시 움직이는 겁니다. 옆에 있는 자매에게 저기 예수님 머리 움직이는 것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게 안 보여?” 하고 묻자 “무서워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러냐?”며 눈을 흘기는 것입니다. 성혈을 들어올리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내 눈에만 보이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서 일어날까.’ 두렵고 무서움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와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여니 예수 성심상이 정면에 계시더군요.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날 어찌 시려구요? 정신병자라고 119 구급차에 실러가는 것을 보시려고 이러십니까?” 하고 소리 소리지르며 대드는데 왜 그렇게도 울음이 북받치던지 소리내며 통곡했습니다.

얼마 동안 울다 지쳐있는 순간, ‘그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발에 박힌 못 하나 빼드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도무지 나 자신도 모르며 솟구쳐 오는 용기를 억제할 수 없더군요. 반장들에게 전화를 다 걸어 용기 백배한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성모님의 용감한 군사들의 행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에게 사람 낚는 은총을 주셨는지, 반장들이 선교하지 못하거나 차디차게 냉대하는 가정은 제 몫으로 주셨는데 백발백중 율척이었지요. 술집에 까지 저를 보내셨는데, 여주인은 자기 같은 사람도 성당에 갈 수 있냐며 울먹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을 만날 수 없어 밤으로 계획을 바꾸어 선교하다 보니, 밤 12시, 1시에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여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고 다리는 통증으로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신 길이 이렇게도 두렵게 밀려오는 고독과 쓸쓸함의 가시밭길이겠지요.’ 예수님과 대화하며 “성모님,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물에 발을 씻고 그냥 누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하루였거든요.” 하며 성모님께도 하소연하듯 중얼거리지만, 가정에는 주부가 할 몫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과 성모님이 또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과 손바닥만하지만 설거지 거리 하나 없이 깨끗한 싱크대에는 밥통에 쌀이 한 바가지 씻겨 있는 채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목욕탕 문을 여는 순간 양말 하나 없이 모두 빨아져 있었어요. 심지어는 딸내미 속옷, 제 속옷과 스타킹까지도 가지런하게 널어놓았더군요.

그렇게도 보수적이던 제 남편이 한 일이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잘 안 보여 제가 손발톱을 깎아주며 수족 노릇을 해야 하는 남편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모님이 도우셨군요. 감사합니다. 제 가정 지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때까지는 원수처럼 투명스럽게 대하여 남편의 손발톱을 깎아주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손발이라 생각하고 곱게 깎아 줄로 갈아서 예쁘게 해준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성령의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큰 선물은 시간 10일조라는 깨달음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2시간 40분을 예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비신자 교적부에 붙일 사진까지 달라고 하면 부담될 것 같아 카메라까지 갖고 다녔으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집에는 동사무소를 통해 민생고를 해결해 주고 심지어는 이혼 부부의 가정법원까지 따라다니며 다시 재결합시키며 예비신자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큰 사건들을 즐거움으로 해결하다 보니 제 자신의 신앙도 놀랍게 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10일 간에 걸쳐 밤 12시까지 뛰게 하시더니 우리 9구역에서만 해도 73명이란 예비신자 교적부를 받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구역은 신자수가 다른 구역의 절반도 안될 만큼 적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200%를 넘는 압도적인 승리로 저희 9구역을 선택하셨습니다. 선교활동 중에 개신교 신자 권면이 70%였습니다.

선교운동을 하며 웃지 못할 일, 울지 못할 일,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제 자신의 변화와 반장님들의 변화만 해도 우리는 큰 만족으로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며 늘 그림자처럼 모시고 다녀보십시오. 두려운 것이 없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성령의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큰 선물은 시간 10일조라는 깨달음입니다. 그 동안 못해보았던 경제적인 10일조가 아니면 시간 10일조. 하루 24시간 중 2시간 40분을 예수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큰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대회년을 맞으며 신앙인의 참된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선교해 보십시오. 저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선물을 주실 겁니다.

## 담임 선생님까지 세례 받았어요 이 은 주 이레네

저는 포콜라레 운동의 3젠으로, 초등학교 5학년 이은주 이레네입니다.

3학년 때 저희 반에는 지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물건을 훔치는 도둑으로 몰리면서 반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서 하루하루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저 보고도 지혜와 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막상 걱정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저까지 따돌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켄 모임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단지 그 친구 안에 계신 고통받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준비물도 빌려주고 쉬는 시간에 지혜와 공기 놀이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따돌림을 당했지만 따돌리던 친구들 하나둘씩 지혜가 도둑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반의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친구 지혜는 저와 함께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은 다른 반이지만 늘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던 친구와 예수님을 몰랐던 친구가 저와 함께 성당에 다니고 싶다고 하여서 주일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은 소풍을 갔는데 한 친구가 차멀미로 구토를 했어요. 그때 저도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싫었지만 구토한 친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휴지로 구토한 것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는데, 놀라서 의자 위에 올라갔던 친구들도 저를 도와 치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풍은 재미있고 더욱 뜻깊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소풍을 다녀온 뒤 선생님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너의 일기장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많이 써 있고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니 나도 네가 다니는 성당에 다닐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선생님, 성당에 다니는 신자가 되려면 먼저 예비신자 교리를 받아야 해요."라고 말씀드리자 선생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꼭 그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후 선생님께서는 예비신자 교리를 마치고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은 수서성당에 다니고 계십니다. 저의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담임 선생님까지 세례를 받으시게 되어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나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이순자 모니카

포콜라레 정신을 알기 전에 저는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의 유토피아처럼 느껴졌고 또한 그것은 성직자나 수도자만이 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콜라레 모임에 참석하면서부터 사랑이신 하느님의 뜻과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시작하고 이웃 형제와 일치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제 마음 안에 하느님의 자리를 항상 비워두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 어느 날이었어요. 뜻하지 않게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교구 방침에 따라 저희 본당에서도 선교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를 보고 선교분과를 맡아 이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고 그 당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막중한 일을 맡는다는 것이 저로서는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거절 끝에 문득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요한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교를 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성모님이 하느님께 하신 것처럼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선교운동이 본당신자들과 함께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단계별로 선교계획을 세우고 선교위원회의 모든 분들과 의논하며 구체적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본당 전 신자를 대상으로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한 사람을 더 입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 사이에 일치를 이루고 서로 친교를 이루는 교육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활동이므로 어느 한 쪽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왜 성당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든가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는 일이나 가가호호 방문하는 일이 창피해서 못하겠다.’는 등의 소리가 들려오면서 열심히 하였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한 명 한 명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 마음을 모아 해주던 활동이 주춤하면서 위원회 구성원들이나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의 불평이 늘어가기 시작하며 서로를 탓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상황에 어쩔 줄 몰랐고 많은 사람들과 부딪치다 보니 내가 왜 이런 일을 맡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켜보며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고 죽음까지도 치러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새로 다시 사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활동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따라주며 밝은 미소를 잃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가 되어주며 그들의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 서로 사랑을 잃지 말자고 다짐하며 여지껏 해왔던 사랑의 행위를 두 배로 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실 거라고 하며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뒤 활동보고를 할 때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였던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문을 거부하는 집에서 채소를 다듬어주기도 하고, 이웃에서 아이를 보아줄 사람이 없어 어려워할 때 집에 데려다가 아이를 보아주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결국 그 사람들이 성당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로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350명이

## 선교 체험

되었습니다. 저희 본당의 경우 한 해에 많아야 80-90명 정도의 예비신자를 입교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아 이런 엄청난 입교자를 몇 개월 만에 탄생시킨 것에 대해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주신다는 복음을 기억하였으며,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하느님의 백 배의 상이었습니다.

매순간 형제와 일치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했을 때 오는 이 기쁨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매순간 하느님을 선택하며 사랑하고자 합니다.

##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장지호 루가

저는 포콜라레 운동의 2젠에 속한 장지호 루가이고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2젠 이상의 가르침대로, 저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거의 모든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내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 한 명은 공부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애들과 어울려 매일 노래방이나 술집을 드나들며 놀았습니다.

그 친구를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 입시 공부를 해야 될 것을 말해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는 마음을 잡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학원에 다닐 여유가 안되는 그 친구에게 방학 때는 제가 비교적 잘 했던 수학을 정기적으로 가르쳐주기도 하여, 그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화를 잘 내고 성격도 급해 자주 다투고 주먹싸움을 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싸움을 하고 난 그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그 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왔을 때, 입장을 바꾸어 조금 이

해하고 양보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가끔 그런 일이 있을 때엔 친구가 제 생각을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의 신앙이나 쟈 이상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게 사실 좀 힘든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보통 애들에게 종교는 구시대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하느님이나 영적인 가치 역시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제가 고리타분하게 여겨질 것 같았고, 하찮은 말재주로 신앙이나 쟈 이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저를 멀리한다고 해도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느님께 걱정을 맡겨드리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나는 하느님을 믿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잘 안될 때도 많지만 모두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고,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언제부터인지 그 친구는 화를 잘 내는 성격을 조금씩 고쳐나갔고 가끔 쟈 모임에 초대했을 때 와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어머니는 다른 종교 신자이시지만 본인은 정작 성당에 다니길 원한다면서 저와 같이 다니기를 원하였고, 또 다른 친구도 함께 다니겠다고 해서 셋이 함께 성당에 다니며, 저는 예비신자 교리에도 함께 나가주었습니다. 같이했던 한 친구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만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부대 가까이 성당이 없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성당에 나가고 있다고 가끔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교구 선교봉사회를 통하여

### 선교의 역사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 이승훈 베드로 선조에 의해 이 땅에 천주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순탄치 못한 환경을 무릅쓰고 놀라운 교세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특히 1886년 한불조약으로 종교자유가 허용될 때까지 100여 년 동안은 순교자가 1만 명이상이었으나 당시 생존 신자가 1만4천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2만4천 배의 교세를 신장시킨 것입니다. 그 후 해방과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난 후 극도로 황폐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세계 각국의 천주교회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천주교회를 통하여 신자는 물론 비신자들에게도 나눠주는 바람에 외국인들의 입교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1955년 19만 명이었던 신자수가 10년 후인 1965년에는 69만 명으로 3배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때였던 80년대에는 모든 언론과 지식이 숨죽이고 있을 때 우리 천주교회에서 예언자적인 소리를 내었습니다. 기댈 곳 없었던 많은 국민들이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선교율은 연 평균 10%에 가까운 높은 것이었습니다 (1980년 신자수 132만 명, 1990년 신자수 275만 명).

되돌아보면 사회적(박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오히려 높은 선교율을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이룬 근래에 와서 교회 성장이 둔화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교회가 국민들에게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유발시킬 요소를 제공치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교계 내 각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방법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자발적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예비신자의 숫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교회는 앉아서 그들을 맞이하고 예비신자 교리 교육 후 영세 시키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활동에 의한 성장보다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선교에 안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의 경우 선교율이 3% 이하로 될 지경에 이르자 위기감이 확산되었고 이때 인천교구 만수1동에서 시작한 조직적 선교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선교운동의 프로그램 내용은 개신교 선교운동인 '총동원 전도주일'과 아주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즉 선교운동의 목적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수행과 교회와 신자의 영적 성장에 둔 것이나 선교운동을 준비단계 - 총력단계 - 결실단계로 구분하여 진행시킨 점, 그리고 금식기도와 고리기도, 소식지,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방법 등이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는 방법에 신·구교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 전래 이래 최초로 접해본 조직적 선교운동에 대한 각 본당의 반응은 찬·반 양쪽 모두가 신선하고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두 선교와 방문 선교의 교육은 선교운동 내용에 충실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선교 방법은 최초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상자를 찾아다니며 선교를 펼치신 모범을 본받은 것에 다름아닙니다. 게으른 우리가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깨달은 선교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교는 뜻열정으로 맹목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는 결코 목적인 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오로 사도도 "나는 달음질을 하되 목표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2고린 11, 2)라는 말로써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교를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교구는 전입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말미암은 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난 20년 동안 새 성전 건축에 교회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80년도에는 45개 본당에 9만5천 신자였으나 지금은 128개 본당에 48만 5천 명이 넘는 전국 제2위 규모의 교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교세의 외형적 성장은

즉흥적,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본당의 선교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회년 교구 사목 주제인 “선교로 새 생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교구 선교봉사회를 1999년 10월에 출범시켰습니다.

팔목한 것이었으나 선교로 인한 성장이 아닌 전입인구에 의한 자연적 성장이었습니다. 새 신자 증가로 인한 성장률은 전국적 현상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교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교구장님께서서는 대회년인 금년의 사목표어를 “선교로 새 생명”이라 정하시고 대대적 선교활동을 요구하셨습니다.

1997년부터 교구 내 몇몇 본당이 자발적으로 조직적 선교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시작하여 1999년에는 여러 본당에서 선교운동을 실시하였으나 절반에 가까운 본당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나마 상당수의 본당에서는 계획조차 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을 파악한 교구 복음화국에서 선교운동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강사진을 구성하여

- 본당 차원의 선교운동을 교구 선교운동 차원으로 확대하며
- 이로써 각종 홍보물을 비롯한 조직과 인력을 통일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시간을 절약하며
- 선교운동의 계획부터 마무리까지의 과정을 지원하고
- 지금까지 나타난 선교운동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공유하고
- 즉흥적,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본당의 선교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 대회년 교구 사목 주제인 “선교로 새 생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교구 선교봉사회를 1999년 10월에 출범시켰습니다.

선교봉사회는 선교 세미나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4개 강의 주제를 복수로 담당할 8명의 강사들과 세미나 중에 이루어지는 찬미시간을 지원할 반주자 1명을 합하여 9명의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미나의 종류는 1일 코스, 2주 코스, 4주 코스가 있습니다.

## 세미나 진행은 어떻게

- 진행 전 참석자 모두에게 교구에서 제작한 선교 자료집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배부합니다.
- 개회식: 취지의 말 - 시작기도 - 시작성가 - 성서봉독 - 일정 소개
- 제1강의: 선교사명 - 선교의 목적과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선교 봉사자가 갖출 태도를 얘기합니다.
- 제 2강의: 개인 선교방법 - 다양한 선교 대상자의 유형별 접근과 대화, 입교방법을 설명합니다.
- 제3강의: 공동체 선교방법 - 본당 선교운동에 임하는 신자들의 자세와 본당공동체 선교방법을 강사의 체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 제4강의: 예비신자 관리 - 입교 의사를 나타낸 대상자를 환영식부터 세례식까지 어떻게 탈락함 없이 돌보는지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 조별 대화와 발표 - 조별 대화를 이끌 조장의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대화 주제는 강의 내용과 세미나 진행과정에 따라 점차 심화시키는 것으로 실시합니다
- 실천사항 부여 - 세미나의 여러 과정을 마칠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다음 주 과정 시간까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부여합니다(기도, 성서읽기, 선교활동 등).
- 파견미사와 전서식 - 세미나 종료 후 파견미사를 실시하며 미사 중에 선교사 전서식을 갖게 하고 본당 상황에 따라 수료증 교부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세미나를 통한 변화

사목자는 물론 사목위원과의 간단없는 대화를 통하여 선교전략의 정보를 제공하고 타본당의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선교계획의 수립, 진행에 도움을 주고 특히 자신감을 심어주어 선교운동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수강자들은 세미나 과정을 통하여 반복하여 듣게 되는 선교사명에 대한 의식이 고취되고, 다양한 선교사례를 접한 후 이루어지는 실천사항의 수행은 조별 발표를 통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과정의 진행에 따라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 현재까지 수원교구 선교운동 결과

금년 수원교구의 중점 사항인 10·10운동, 곧 미사 참여율 10% 상승과 선교율 10% 달성을 위하여 교구 내 각 본당에서는 선교운동을 계획하고 있거나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미 예비신자 환영식을 마친 본당 중 선교율이 우수한 본당(8월 31일 현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당명	전체 신자수	입교자수	선교율	비 고
팬 성	2,100	617	29	평택시
신흥동	4,000	523	13	성남시
권선동	9,000	932	10	수원시

## 앞으로의 활동계획

- 기존 프로그램의 보강
- 교구 내 사목위원 대상의 심화 선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쉬는 교우 회두운동 프로그램(계획, 실천, 신자교육)의 개발

1999년 10월에 결성되어 3개월의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월 27일 교구 내 선교분과위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원교구 선교봉사회는 그 동안 30여 개 본당에서 선교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재의 불충함과 강사진의 역량 부족을 누구보다도 회원 스스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의 직장, 가정, 본당을 넘나들며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심신의 긴장상태의 지속으로 말미암은 피로도 만만치 않지만 세미나를 통하여 해당 본당에 작은 도움이나마 주게 된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세미나 수강생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기쁨은 위의 모든 어려움을 일거에 없애버릴 수 있는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순수 평신도들로만 구성된 교구 차원의 본당 지원 선교 세미나를 다른 교구에서도 시도해 볼 것을 권합니다.

## 내 삶의 고백

전국의 평협 임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여러 가지로 부덕하고 신심이 약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고 부끄러우나 저 개인으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제주땅에 묻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잘것없는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출생과 성장

저는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이 짙은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시골 농사꾼의 아들이었고, 그것도 딸만 낳아 이웃에 숨죽이고 살던 어머니의 부처님에 대한 정성의 소산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유교사상에 깊이 물든 우리 집안에서는 불교도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남몰래 절간을 찾아다녔고, 특히 외조부께서는 수운교에 심취하여 제주에 수운교를 처음으로 도입한 처지라 어머니도 수운교를 신봉하게 되어 집안 어른들로부터 많은 비웃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뒤늦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점쟁이집, 무당집, 수운교 법당, 한약국(침쟁이) 등으로 끌려다니느라 심신이 더욱 피로했고, 유일한 재산인 농토는 팔려나가 집안은 날로 가난해졌습니다. 점쟁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를 “탈이거성”(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 부모님은 어린 나를 외가로 보내 외조부가 경영하는 한문서당에서 한문을 배울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가 되어 제주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제주북국민학교를 찾아갔으나 입시에서 두 번 낙방하고 삼수 만에 합격했으니 지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

다. 일본 말만 써야 하는 당시이므로 그림책을 꺼내놓고 꼬끼리를 지적하여 일본 말로 이름을 대라 하니, 소나 말 같은 것은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꼬끼리는 일본 말로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해에는 기린을 지적하여 역시 낙방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지식인 양성이 아니라 노동자·농민을 양산하려 했기 때문인 것을 뒤에 서야 알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재수하는 2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신학문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개량서당에서 공부했고 거기서 우리 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주북국민학교 2학년 때 병이 심해 학교를 쉬게 되었고 3학년 때 해방을 맞이하여 몸이 회복된 5학년해야 복교를 하려 하니 3학년으로 복교하라 해서 많은 고심을 했으나 통사정하여 시험을 보고서야 5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그러나 복학하자마자 제주 4·3사건이 악화되어 집이 불타버리고 피난생활하느라 학교는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피난다니던 나는 부모님을 따라 한라산으로 올라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한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누님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한라산 속을 헤매는 것이 안타까워 작은딸은 내가 업고 다니다가 눈 쌓인 골짜기 아지트에 눕혀두고 잠시 불일보러 나왔다가 토벌 나온 군인들에게 붙잡혀 내려오느라 데리고 오지 못하여 그 속에서 울다 지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에 있는 아기를 업고 가겠다고 울부짖는 나의 간절한 부탁도 들어주지 않던 군인들의 냉정한 태도가 비록 작전상의 이유겠지만 내 생애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공포심에 시달리며 군인들에게 끌려 내려오던 나에게 뜻하지 않은 서광이 비쳤습니다. 국민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선무공작대원으로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수용소에서 빨리 나올 수 있었고 졸업을 얼마 앞둔 6학년으로 복학하였습니다.

졸업 수학여행을 간다가 기념사진을 찍는다 해도 먹고 살기에도 힘든 나는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중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불타버린 옛 터전에 움막을 짓고 아버지와 함께 장작장수를 했습니다. 5km나 되는 시골에서 장작을 지고 시내로 나와 식당마다 돌아다니며 팔아야 했는데, 특히 중국집에서 풍겨나오는 자장면 냄새가 코를 진동해도 참고 시골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는 나를 국민학교 담임선생님이 안타깝게 여기시어 천주교 재단에서 개교하는 신성여자중학교에 급사로 취직시키시고 오현중학교 야간부에도 입학시켜 주시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천주교 입문

신성여자중학교에 취직한 나는 부지런히 일하며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신성여중에도 야간부가 있었기 때문에 여학생들 뒷자리에 앉아 배웠으니 꽃밭에서 공부한 유일한 남학생입니다.

천주교 재단 학교에 근무하다 보니 유교와 수운교 사상에 물들고 자란 나도 차차 천주교 교리를 배우게 되어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성당과 학교가 같은 구내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새 신부님들과 친하게 지내는 나는 요리문답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쉽게 세례 찰고를 통과할 줄 알았으나 글자 그대로 외워야 한다며 여러 번 불합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서양 신부님들의 이러한 태도에 반발하듯 장난기 섞인 응답을 하는 바람에 수십 번 머리에 알밤을 맞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은 몇이뇨?” 하면 “하느님은 일흔하나올시다.” 해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일은 하나이신 하느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여...”라고 된 것을 “첫째는” 이라고 하지 않고 “일은” 했기 때문에 붙여 읽으면 “하느님이 일흔하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부모에 효도하고, 죽은 부모에게는 효도 안해도 됩니다.” “오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가는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칠은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것은 도둑질해도 됩니다.” 하며 장난기로 응했지만 신부님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었던지 세례를 주시어 당당하게 영성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 6·25 참전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는데, 낮미사가 끝나자 38선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뒤숭숭해졌습니다. 38선에서 가끔 전투가 있었으므로 그런 정도로 짐작하고 있었으나, 날이 갈수록 심해져 서울이 함락되고 급기야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부산, 대구, 마산, 제주밖에 남지 않았고,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군에 나갈 생각을 앓고 있는 것에 어린 나는 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일, 중학교 2학년인 나는 학도병으로 지원하여 1주일 동안 목총훈련을 받고 전선으로 갔습니다.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우리는 왜관을 거쳐 북진하였고 인민군들을 하루에도 몇 백 명씩 포로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부터 목에 차고 간 목주

는 목걸이로 착각한 선임하사가 빼앗아 가버려 폐허가 된 상주성당에 둘러 홀로 남아계신 신부님께 목주 하나를 얻어 차고 다녔습니다.

1951년 2월 6일, 이날은 설날이었는데 서산에 해질 무렵 인민군 공세에 밀려 아군은 지리멸렬되었고, 나는 다리에 총상을 입어버렸습니다. 아군은 후퇴하는데 부상당한 나는 따라갈 수조차 없어 눈 덮인 들판에서 밀려오는 인민군을 피해 황급히 큰 바위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별때같이 몰려온 인민군들은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부상당한 아군들을 대검으로 확인사살까지 했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바위 밑에 숨어 떨면서 목주를 들고 발각되지 않기만을 기원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날뛰던 그들에게 “국방군의 반격이 오기 전에 자기 진지로 퇴각하라!”는 명령이 내 가까운 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어느 정도 조용해진 뒤에야 나는 슬금슬금 기어나왔습니다. 인민군들이 내가 숨어 있는 큰 바위 밑을 수색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바위 위에서 그들의 지휘관이 지휘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달도 없는 설날 밤이지만 산야에 뒤덮인 눈으로 그리 어둡지는 않아서 아군을 찾느라 군화 발자국을 따라 밤새 기어갔습니다. 뒷날 새벽 6시쯤 아군 진지 가까이 갔을 때 낮에 인연을 맺은 지계꾼이 찾아와 나를 지계에 짊어지고 몇 십리 산길을 운반해 주었습니다.

그 지계꾼은 인민군 지폐를 소지한 때문에 대대장이 전령인 나에게 총살 명령을 내렸으나, 대대장 짐과 내 것까지 짊어지고 다니기 힘든 나는 그에게 짐을 지도록 하면서 같이 다니다 내가 부상당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밤새 얼음 위를 기어온 나는 팔다리에 감각이 없었으므로 그는 나를 지계에 올려놓고 새끼줄로 동여맸습니다. 그가 낮에 애꿎게 죽을 것을 살려준 값을 내가 톡톡히 받은 셈이었습니다.

육군병원에 도착한 나는 팔다리가 잘린 부상병들을 보며 근심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군의관들이 의대생으로 초임인지라 웬만한 것은 잘라버린다는 것이어서 동상기가 있는 나의 팔다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잘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실에서 전신마취를 하려 할 때 군의관에게 “군의관님, 죄송하지만 다리를 자르지 말고 수술해 주십시오.” 하고 애원했더니 “군의관은 나야! 마취!” 하는 그의 말에 실망한 나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회복되고 다리가 잘리지 않고 깁스 상태인 것을 알고 의아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료차 군의관을 따라 들어온 여군 간호중사는 내 다리에서 뽑아낸 총

알을 기념으로 주면서 “군의관님께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하였습니다. 나의 인사를 받은 군의관은 “나보다도 간호중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마취상태인 나는 무의식 중에 “천주님, 내 다리를 자르지 않게 해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하고 중얼거렸고, 마침 간호중사는 천주교 신자로 내 간절한 호소에 감동하여 톱을 든 군의관의 손을 붙들고 자르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등산까지도 하는 이 다리가 그때 잘려버렸다면 어찌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정말 우연인지 하느님의 도움이었는지 그 간호중사가 신자였다는 인연으로 내 다리가 무사했다고 믿습니다.

## 고 학

명예제대로 돌아온 나는 신성여중 교감이었던 분이 원장으로 있는 제주 미국공보원에 일자리를 정하고 밤마다 시골을 돌아다니며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오현고등학교 야간부에 진학한 나는 영화상영차 시골로 돌아다니느라 학교는 토요일 하루만 출석하는 정도였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라 대학에 진학할 학자금을 저축할 수 있으리라 믿었으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이젠하워가 당선되면서 극동정책이 바뀌어 감원당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입학금 마련이 걱정되었습니다.

일본어를 아는 나는 일본의 대학 입시문제로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 서울상대 원서를 들고 찾아갔으나 오현고에서는 정신이상자로 취급하며 원서를 써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석을 밥먹듯이 하던 내가 서울대 원서를 들고 갔으니 허락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낮에 6년 동안 꼬박 학교에 다닌 사람도 어려운 판에 밤에 6년, 그것도 이름만 걸어놓고 결석만 하던 내가 욕심이 너무 지나쳤다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그뒤 일 년 동안 두문불출 와신상담하는 정신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상대에 합격하여 4년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가정교사도 해보고, 프랑스 대사관 지하 방공호 속에서 친구들과 자취생활도 하다 쫓겨나 헤매던 나는 보건사회부 원호국장에게 도움을 청하여 상이군인 정양원에 들어가 먹고 잠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농업은행에 합격하기에 또다시 보건사회부 원호국장을 찾아가 고마운 인사와 함께 상이군인으로서의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까지 무료로 공부시키고 원호혜택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등록취소까지 하려고 했는지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자립심을 더욱 키운 결과였다고 느낍니다.



1997년 아들이 사제품을 받았다. 아들 사제(현요안 신부, 제주 조천성당 주임)에게 성체를 모시고 있는 필자.

## 전성기

은행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졌고,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와 함께 노력하여 지난날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쪼들리며 성장하던 때와 달리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한 결과 실적이 앞섰고 승진도 순조로웠습니다.

집 한 채도 마련하지 못한 때이지만 나의 과거를 거울삼아 불우한 고학생의 학비지원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기반이 잡힌 다음에 남을 돕겠다는 것은 모두 헛구호라고 믿었고, 부정으로 모은 재력으로 자선의 탈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기, 바둑, 마작, 화투, 골프 따위를 모릅니다. 그런 오락에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이 항상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은행 지점장이 되고 모두가 골프장으로 달려가고, 모여앉으면 골프 얘기를 화제로 삼을 때도 그들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능력에 그저 놀라기만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힘든데 토요일 일요일마다 골프장에 가면서도 생활에 걱정없는 그들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은행감독원장을 비롯한 몇몇 은행장 등 대학 동기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어느 은행 지점장이 “너, 골프 안 치냐? 그러니 촌 지점장이라 하지.” 하고 놀리기에 “네 월급이나 내 월급이나 같은데 나는 월급으로 살아가기도 힘든데 무슨 재주로 골프 비용 대고 있냐? 네 돈으로 골프 치고 있냐? 남의 돈으로 치고 있냐? 이 기회에 양심껏 말해 봐.” 하고 반격했더니 옆에 있던 감독원장이 “사실, 현 형의 말에 일리가 있어.” 하고 말해 주변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골프 치는

공직자는 한 분도 없으리라 믿어집니다.

나는 술 마시는 것을 즐기지만 2차는 되도록 안 갑니다. 2차로 마시러 가는 것은 낭비이고 실수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카바레, 나이트클럽을 구별 못하며 룸살롱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런 술집은 도덕적으로 타락의 근원이 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인지 지점장 이상의 승진 기회는 갖지 못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감귤농장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행원 시절부터 정년퇴직 후의 노후대책을 생각해 조금씩 투자해 만든 농장입니다. 나 자신이 농약 치고 거름 주고 밀감 따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사람들이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나오고 은행 지점장까지나 지내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막노동을 하느냐고 비웃기도 했으나 나 중에는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믿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나를 본당 사도회장으로 뽑아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제주교구가 독립하게 되어 교구 평협회장이 되고 현 대주교님 착좌식을 갖는 것을 필두로, 정례적인 교회행사말고도 현 대주교님 서거, 독립운동가 최정숙 여사 서거, 박정일 주교님 착좌 등 큰 행사가 연이어 터지고 지금처럼 교세가 크지 못한 때라 일손이 모자라 애먹기도 했으나 젊은 청년들의 헌신적 봉사로 훌륭히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사건 등으로 교회가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관계당국과 교회 사이에 끼어 시달림을 받던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되곤 합니다. 직장에서 서울 근무 명령이 없었더라면 벗지 못할 평협회장직을 벗어나 훌가분한 마음이었습니

## 시련

3남 2녀의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기를 바랐으나 시련이 닥쳤습니다. 네 번째로 태어난 작은딸이 소아마비로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매달려 자녀들에게 소홀히 한 죄값을 작은딸에게 치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답지 않게 명랑하게 자라나는 딸을 보며 위안을 삼던 차에 신성여고 2학년이던 큰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우리 가정에 웃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982년 사순시기 성주간에 큰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이 우리 집에 닥쳐오리라고 추호도 생각지 못했는데 현실로 닥쳐온 것입니다. 평소에도 어려운 학생들은 도와주던 나는 이 기회에 큰딸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고 중학생 3명, 고교생 6명에게 학비 전액을 부담하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큰형, 둘째형이 복사반 활동을 하면서 장차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다가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지켜보던 막내아들이 큰누나의 갑작스런 변고에 자극되었던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광주 가톨릭 대학교로 갈 때도 신부가 되리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제가 되고 사제품을 받을 때까지도 조마조마한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제품을 받는 날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연민의 정이 느껴졌지만 훌륭한 사제의 길을 걸어줄 것을 기원하며 마음 한구석에 뿌듯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협회장 시절에 신자들에게 농담조로 “사제 많이 나오기를 바라지요? 단, 우리 집 아들은 빼고, 남의 집 아들로…”라고 말해오곤 했는데, 내가 그 농담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제 아버지가 된 것도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 후회

내 생애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1998년 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로 출마한 것입니다. 정년퇴직 후 농장에서 소일하고 있는 나에게 주변에서 도지사 출마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하면 된다는 옛말을 잠깐 잊어버린 것입니다.

집권당에서 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집권당으로 몰려가는 정치철새들의 소신없는 처신에 분개하던 나는 6·25 때 군입대를 피하여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구국의 일념으로 전선으로 달려가던 심정으로, 모두 떠나버린 야당 후보

로 도지사에게 출마했습니다. 집권당 공천에서 떨어진 현직 도지사의 사기극에 놀아난 셈도 있지만, 야당 간판으로 입후보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두 번씩 제주도지사를 역임하며 검증된 사람들이 세 번째 도전하는 것에 식상해 있는 도민에게 신선미를 제공하려 했던 것이 출마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을 때부터 선거를 의식해 조직한 막강한 조직과 금권 앞에는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 반성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고해성사로 자기 반성에 익숙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더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서 있었던 큰 행사 끝에 쓰레기 하나 없이 잘 치우고 갔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나 혼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쓰레기를 집에까지 갖고 가 잘 처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들고 가다가 쓰레기통에다 넘치도록 버리고 간 것이 우리 자신이었으니 쓰레기통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을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에 성당 마크를 붙였으면 교통질서와 주차질서를 더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도 반성해야 합니다.

종교간 분쟁이 지구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지만 종교의 옹고집으로 가정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에 우리도 한 주역을 맡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나에게 “너희 성당은 우상숭배가 심해. 그리고 성당 간부나 되는 사람이 집안 족보 만드는 것애나 쫓아다니고...”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상이 무엇이냐?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작대기 걸쳐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꿇고 기도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너의 집 족보도 모르면서 예수님 족보는 달달 외우고 다니는 너는 잘하는 것이냐?” 하고 말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종교를 비판하려면 철저히 교리를 배우고 나서 비판해야지. 무조건 자기 종교와 상처한 것이 있다고 고집을 부려서도 안될 줄 믿습니다. 종교를 앞세워 집안의 전통과 위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이 남의 눈에 이렇게 비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글은 지난 11월 11-12일 제주도 성 이시돌 회관에서 열린 2000년도 전국 평형 상임위원회에서 신앙 체험 사례로 발표된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공의회로 돌아가자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가 '새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 어제, 오늘도 영원히 같은 그리스도'를 주제로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로마에서 개최한 세계평신도대회는 114개국(94개 주교회의), 82개 평신도 사도직 운동과 단체를 대표한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등 모두 577명이 참가한 대규모 대회였다. 키아라 루빅, 장 바니에, 안드레아 리카르디와 같은 평신도 운동과 단체의 창설자들, 마조비에 츠키 전 폴란드 총리, 마이클 노박 등 저명한 평신도들과 함께 프랑스의 방주 공동체의 미셀과 같은 장애인도 이 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에서는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여규태 회장과 김형중 부회장 등이, 그리고 필자는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이 대회는 평신도의 대회년을 기념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1951년, 1957년, 1967년에 이어 개최된 이를테면 제4차 세계평신도대회인 셈이다. 1951년과 57년의 대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년)를 준비하는 성격의 대회였고, 1967년의 대회가 공의회가 가르침 실천의 첫발을 내딛는 자리였다면, 이번 대회는 그 동안의 공의회가 가르침 실천을 평가하고 새 천년대를 맞이하는 결의를 다짐하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이번 대회는 공의회 문헌과 교황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진행된 새 천년대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의 장이었다.

첫날 교황님은 소다노 국무원장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평신도들에게 교회의 긴박한 선교 소명에 즉각 충실히 응답하라고 권고하면서, 평신도들은 교회 안의 생활에도 참여해야 하지만, 이들을 “교회 안의 필요한 일로 과도하게 퇴각시켜 평신도상을 변질시키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세계평신도대회에 참가하여 11월 26일 교황님을 알현하고 있는 필자는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위원이다.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의장인 프란시스 스탠포드 추기경은 개막 연설에서 현대의 평신도 사도직 분야로 폭력에 맞선 평화의 증언, 생명공학과 관련된 윤리 문제, 세계화와 관련된 새로운 경제 현상,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새로운 역사 단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증언의 도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와 대륙별 발표에서 필자는 아시아의 종교, 문화, 경제, 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복음의 토착화, 종교간 대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연대를 아시아 평신도의 과제로 제시했다.

공의회 이후 평신도가 걸어온 길을 평가하는 강의에서 라테란 대학교 총장 안젤로 스킨라 주교는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조명했고,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사무총장 스타니스와프 릴코 주교는 평신도 운동과 단체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질적으로 우수한 소수가 되어 세상의 도전에 즉각 대응하는 효과적인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 이튿날인 11월 26일 교황님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평신도의 대회년 장엄미사에 참석한 대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5만여 신자들에게 공의회의 가르침이 새 천년대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공의회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셨다. 이러한 뜻에서 교황님은 미사 뒤 삼종기도를 바친 다음 5개 대륙의 평신도 10명에게 공의회 문헌을 하사하시기도 했다.

“공의회와 더불어 교회는 참으로 평신도의 시대가 열렸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인류의 새로운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려면 평신도 사도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종종 시류를 거스르는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평신도는 사회의 중요한 신경 마디마디에 복음의 빛을 가져가 그리스도

교적 희망의 예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덕으로 불렸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직의 열매는 깊은 영적 생활, 열렬한 기도, 꾸준한 교육, 진지한 교회 지침을 지키는 데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곧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불을 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27일에는 평신도 신원의 세례적 근원에 대한 벨기에의 앙드레 뤼티앙 레오나르 주교의 강의, 평신도의 소명에 대한 평신도 전문가들의 소주제 발표와 참가자 발언이 이어졌다. 28일에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새로움을 증언하는 삶에 대한 파리 대교구장 장 마리 뤼스티저 추기경의 강의에 이어 평신도의 사명에 대해 가정, 경제, 문화, 정치 등 각 분야에 관한 평신도 전문가들의 소주제 발표와 참가자 발언이 계속되었다. 29일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한 기니의 로베르 사라 주교의 강의와 평신도 교육에 대한 평신도 전문가들의 소주제 발표와 참가자 발언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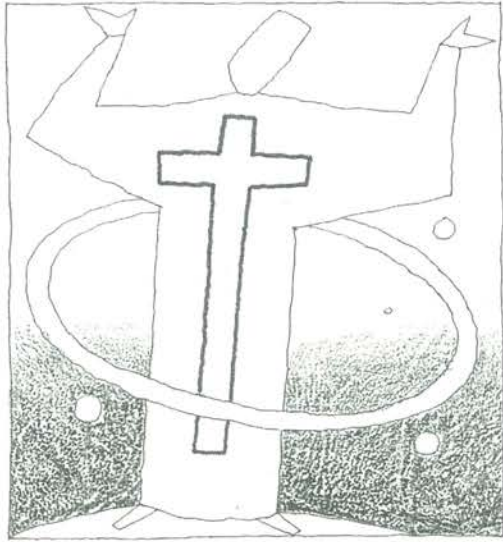
마지막날인 30일에는 미국 보스턴 대교구장 버나드 로 추기경과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사무차장 구즈만 카리키리 교수의 마무리 강의를 있었다. 로 추기경은 신앙과 생활의 분리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고, 카리키리 교수는 평신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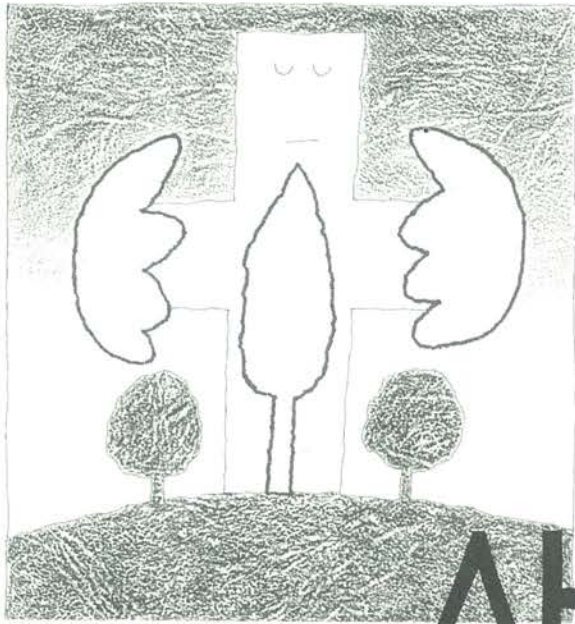
한편 엿새 동안 진행된 강의와 발표에서 한결같이 강조된 것은 새 천년기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필수적인 수단은 바로 교회의 사회교리라는 사실이었다. 특히 사상 최초로 세계평신도대회에 참가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 대표들의 발언은 매우 감동적이어서, 하느님께서 박해 가운데서도 평신도들을 곳곳하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대회는 강의와 체험 발표 이외에도 매일 아침기도와 저녁미사, 25일의 대회년 심야기도, 26일 교황님과 함께한 평신도 대회년 미사, 도미칠라 카타콤바에서 가진 순교자 기억 예절, 29일 마리아 심야기도, 30일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가진 참회 행렬과 성년 문 넘기와 폐막미사의 선교 파견 등 전례가 매우 짜임새 있게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필자에게는 교황님을 다시 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것 또한 커다란 은총이었다. “찬미 예수! 감사합니다.”라고 또렷하고 힘있게 말씀하시며 손을 잡아주시던 교황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 글은 「경향잡지」 2001년 1월호에서 옮겼습니다.





# 사목교서

## 선교하는 공동체

정진석 니콜라오 대주교



우리는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회년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감사로이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생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대회년에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동서가 화합하고 국경과 장벽이 무너지는 이 지구촌의 시대에 자기 피붙이의 소식조차 알지 못하는 모순 가득한 이 땅에 새 생명의 기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과 함께 우리는 여전히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와중에서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지배의 속도를 더해가고 국가간, 계층간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생명경시 풍조와 환경파괴로 인해 인간 존엄성은 손상되고 있으며 우리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갈수록 '잃어버린 양들'이 늘어나서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진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로마 8.22-23)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로마 8.28)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과 믿음을 굳게 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올해는 한국교회

역사상 신유박해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죽이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얼을 본받아 우리도 신앙을 삶으로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 1. 소공동체와 선교

1) 우리 교구는 그 동안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복음선포에 참여해 온 모든 사람들의 순교자적인 증거와 선포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고 동시에 선교를 하면서 신자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 곳에서 들려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면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마태 11.26).

2) 복음선포의 첫째 형태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였습니다. 복지 시설이나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이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신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증거의 삶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천적인 사랑의 증거는 복음을 더욱 설득력있게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복음선포의 두번째 형태는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은 삶의 증거와 함께 복음을 말로 전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증거라 하더라도 설명되고 납득되지 못하면 때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현대의 복음선교 22항). 현대 세계의 특징은 대중매체의 발달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같은 현대의 여러 홍보수단을 잘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책임과 역할을 나누며 자율적이고도 창조적으로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교회의 삶의 방식이 다름아닌 소공동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소공동체는 신앙양성은 물론 복음화의 도구이자 ‘사랑의 문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의 출발점입니다”(교회의 선교사명 51항).

이제 우리의 소공동체는 차츰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선교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소공동체가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예비신자들의 신앙 여정에 함께하며, 신자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못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공동체에서 양성된 평신도 지도자들은 본당과 사회에서 평신도 사도직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소공동체는 사귄과 섬김과 나눔의 삶을 더욱 발전시켜서 냉담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동체는 그 지역사회 안에 뿌리를 내려 가난한 이들과 소외받는 이들을 돌보며 사회변혁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구는 소공동체를 통한 복음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선교의 방향 또한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선교'를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2. 새 천년기의 교구 시노드

1) 우리 교구는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하여 교구 시노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교구 시노드는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교구의 전체 교우들, 성직자와 수도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거교구적인 대회입니다. 아직은 우리들 사이에 시노드에 대한 이해가 널리 확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시노드를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하여 함께 인식하는 것입니다.

2)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봅니다. 다같이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신앙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서기' 위해 시노드를 하자는 것입니다.

3)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는 시노드 정신을 배우며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시노드 자료들을 마련하여 누구나 손쉽게 시노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교구 차원으로 혹은 지구 단위나 본당 그리고 단체들에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시노드에 관심을 갖고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며 '시노드가 교구 발전의 다시없는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당부합니다. 시노드는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에 충실해야만 우리의 시노드는 풍성한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들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 발전과 쇄신의 방안들을 다 내어놓고 축제를 벌이는 열린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 마음을 열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실 것입니다.

###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

1) 지난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두 민족이 갈라지지 않을 것”(예제 37,22)이라는 말씀이 실현되길 고대합니다. 비록 제한된 인원이라는 하지만 8·15 이산 가족상봉은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만남과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지난날의 역사를 뒤로하고 평화의 역군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2) 우리가 추구하는 민족공동체의 모습은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동안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적 고통을 겪는 북한의 형제들에게 형제애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물질적 나눔은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나눔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형제·자매라는 인식이 교회 안에 굳게 자리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0여년을 서로 다른 사회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질적인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일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구장인 저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 성령과 성체 안에 거듭 태어나는 둘째 해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경 감 룡 요셉 주교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인 2000년 대회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보내고 200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회년의 목적은 외적인 어떤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2천 년 전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강생하신 그 신비를 오늘에 사는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 내면화시키고 삶을 통해 그 신비를 표출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자각과 거듭 태어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구는 2천 년 대회년의 사목지표를 “성령과 성체 안에 거듭 태어나는 해”로 정하였습니다. 성령과 성체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주님의 현존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두 축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성체를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2001년의 교구 사목지표 역시 대회년에 이어 “성령과 성체 안에 거듭 태어나는 둘째 해”로 정합니다. 인간의 성숙이 그러하듯 영적 생명인 우리 신앙 역시 단숨에 성숙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항구하게, 끊임없이 거듭 태어남이 반복될 때 성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시고 키우신 제자들은 처음 불리움을 받을 때부터 주님과 침식을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저들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끝내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듬뿍 받고서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였고, 주님의 복음과 행적,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닭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이해하고 묵은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불가불 필요합니다.

“신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리고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흥겹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했다. 그리하여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은 그 모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려주셨다”(사도 2.42-47).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 생겨난 것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이루어진 교회는 바로 세상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체성사로 보양되고 양육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빵을 나누는 친교를 통하여 힘을 얻고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셨듯이 모든 사람의 먹거리로 자처하고 봉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호감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체성사는 전례나 개인신심 차원을 넘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먹거리입니다. 그것은 성체성사를 받아 모시는 우리 자신이 세상과 이웃을 위한 밥이 되고 성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올해는 신유박해(1801년)가 있는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유박해 때 순교한 선열들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사람들을 위한 먹거리, 곧 성체성사였습니다. 우리 교구는 몇 년째 ‘선교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있습니다. 기도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 땅의 순교 선열들의 그 열정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성체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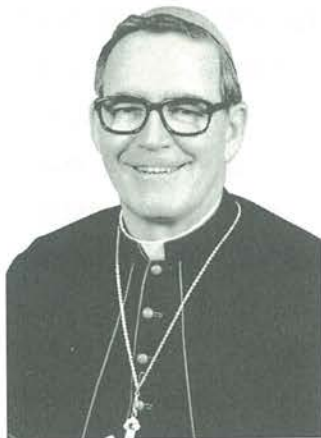
성령과 성체는 이 세상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참 신앙은 주님 체험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이 없는 신앙은 메마르고 삭막합니다. 그리고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좋은 뜻으로 가톨릭을 찾고 영세 입교한 신입교우들이 얼마 못 가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감각을 통해 감각할 수 없는 신비까지도 인식하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체성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성체를 통해서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성령과 성체를 가까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도록 합시다.

## 야훼의 사랑 영원하시다

“야훼께 감사노래 불러라. 그는 어지시다.  
그의 사랑 영원하시다”(시편 118,1).

나 길 모 굴리엘모 주교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린 시편 저자와 같이 저는 대회년 동안 인천교구를 위해 베풀어주신 하느님의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구는 대회년을 맞이하고 미래 교회를 향한 변화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가정과 본당 그리고 교구 공동체의 복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고,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중지(衆智)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자들이 대회년을 통해 거룩한 생활을 되찾았으며, 또 적지 않은 교우들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 어린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교구 신학교를 봉헌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이 배움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제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인천교구의 미래를 제시한 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가 지난해 11월 폐막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교구 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일로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 28, 19-20).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이뤄야 할 사명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알리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선교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

리는 교구 시노드에서 제시된 새 복음화, 재 복음화 그리고 사회 복음화의 길을 따라 교구와 본당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시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교구는 올해부터 교구 시노드 최종문서에 집약된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모든 사제와 신자들은 본당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살려 새 복음화, 재 복음화, 사회 복음화에 불을 지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국 통일과 복녘 교회의 복음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교구민과 사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정보를 수집하여 단계적으로 민족 화해와 평화 통일, 복녘 교회의 복음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 여러분도 민족 화해를 위한 기도와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 1. 새 복음화

우리 교구는 해마다 1만 명 이상의 성인들이 세례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선교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는 내적인 성장에 온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구는 복음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교회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복음선교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기구와 제도,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개편하여 실행 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예비신자 교리를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위한 교재와 지침서를 마련하여 선교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지구와 본당 차원의 깊은 연대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선교 3세기를 맞고 있는 이 땅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머무르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에 의탁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 재 복음화

교구 대의원회의의 기본 목표는 모든 신자들의 신앙 강화와 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제삼천년기 42항). 올해도 이 중요한 목표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여 년 전, 18%에 다다랐던 냉담 신자 비율이 현재는 27%에 이르고 있으며,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 역시 두드러지게 줄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과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교구·지구·본당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앙교육과 사도직 활동을 강화하여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구는 사목국의 업무를 확대하는 한편, 사목연구소를 설립하여 사목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한편, 평생교육원을 준비하여 신자들의 영적 갈증과 신앙을 심화시키기 위해 사제와 신자들의 평생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신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입니다. 인천 신학교 역시 장기적으로 평신도 교육과 전문적인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하는 폭넓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구와 본당에서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일 뿐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 쇄신을 위한 신자 재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성화와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양성에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소공동체(구역·반모임)의 쇄신과 활성화를 위해 각 본당 사목협의회와 모든 단체는 서로 유기적 관계 안에서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도직 활동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 3. 사회 복음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몸소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교회는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인 것이다”(교회 헌장 1항).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사회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사목 기구와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회와 사회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활할 수 없음을 폭넓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구는 사회 복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교회에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화 사명을 완수하는 길인 동시에 사회를 위해 교회가 실천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본당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사목의 주체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애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힘겨움을 보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루가 9.13)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회 복음화의 실현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구와 본당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 선의의 뜻을 가진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집단적 이기주의, 낙태, 인간 배아 복제 등 반윤리적, 반생명적 현상을 거슬러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 5.13 이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4. 청소년 사목

그 동안 교회는 주일학교를 통한 청소년 교리교육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대치하여 왔고, 그 결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소년국은 전인적인 양성, 영적 양성을 위해 체계 있는 정책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실시하던 교리교사·지도자 양성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가톨릭 학생 운동, 학교와의 연계 활동, 지역 봉사과 연대 활동 등 청소년 자치 활동을 육성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사목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청소년국에 소속되어 있던 청년사목부를 청년국으로 승격시켜 청년사목을 총괄하게 하겠습니다. 청년국을 통해서 청년의 특성에 맞는 사목, 청년들의 다양한 처지에 맞는 다원적인 청년사목 정책들을 생산할 것이며, 지구 중심의 청년사목을 펼쳐갈 것입니다. 각 본당도 청년사목에 힘을 기울여주시고, 청년들은 자신이 청년사목의 대상인 동시에 청년사목을 이루어가는 주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늘 청년다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로서 살아가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사도들의 모후이신 복되신 성모님께서 인천교구의 저희 모두를 도우시어, 믿음의 생활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거하고 또한 우리 자신들의 삶의 여정에서 사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고 실천합시다

최 덕 기 바오로 주교



친애하는 수원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본당, 수도원, 가정에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랑을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대회년, 성년을 은혜로이 지내고, 새 천 년기를 맞으면서 교구는 오늘날의 변화된 시대와 세상의 도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효율적인 복음화를 이루어나갈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식 정보화 세상으로 점점 더 변하고 있으므로 복음화와 청소년을 위해서 인터넷 복음화에 힘을 쏟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통일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하며 실질적인 협조와 일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실질적인 봉사자인 여성들의 권익이 더욱더 신장되어야 하고 평신도 인재 양성과 사제들의 평생교육 등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세상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복음화 자세와 방법만이 우리 교구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되며 교구 자신도 더 성장하는 길일 것입니다.

### 1. 제1차 수원교구 시노두스의 목적과 과제

천주교회에는 공의회나 시노두스를 개최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당면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쇄신을 위하여 공의

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또한 복음화 차원에서 교회는 로마 주교 시노두스를 비롯하여 대륙별 시노두스를 개최해 왔고, 교구마다 시노두스를 열어 새 시대에 맞는 새 복음화를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교구는 새 천년기를 맞아 제1차 교구 시노두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원교구 시노두스의 목적은 “새로운 복음화의 길 찾기”에 있습니다. 즉, 교구가 새 천년기를 맞으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기울여오던 복음화 노력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복음화의 길을 찾아 온 교구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 이번 시노두스의 목적입니다.

시노두스(syn+hodos)라는 말 자체가 “함께 길을 찾고, 함께 그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수원교구는 교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교회 기초 공동체’와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이라는 두 가지 분야를 채택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화 분야들도 중요하고 쇄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히 위의 두 복음화 분야들이야말로 교회의 운명과 미래가 걸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기초 공동체’는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장(場)으로서, 교회의 운명이 여기서 승패가 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대형화와 집단화, 그리고 (대)도시의 익명화와 사제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역동성과 일치성, 소속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우들이 ‘교회 기초 공동체’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많은 문제와 과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해 가며, 스스로 복음화를 실천해 나가는 등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교회 기초 공동체가야말로 신자들이 복음화되고 이웃을 복음화시켜 나가는 “복음 선교의 못자리가 되고, 더욱 큰 공동체 특히 지역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현대의 복음선교 58항).

‘교회 기초 공동체’ 의안은 “바쁜 현대인들이 매주(적어도 다달이) 한 번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이 모임이 명실공히 교회 기초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회 기초 공동체는 현대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키워나가는 못자리로서 그리고 작은 교회 공동체가 복음선교와 사회 복음화 사명을 실현시켜 나가는 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아나가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이 의안의 과제입니다.

‘젊은이들의 신앙생활’ 문제는 교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 중 가장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은 지금 “남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는 신앙의 논리와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밟고 죽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논리 사이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고, 입시위주와 출세중심 사회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른 젊은이들처럼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고 개성과 개인주의를 중요시하는 X세대이며,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보다 기술문명에 더 희망을 걸고 사는 N세대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생활에 흥미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지만, 때로는 영원한 가치와 영성에 대한 갈망을 갖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싶어합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 관계와 소속감을 갖기를 갈망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성당에 와도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교회의 자세가 부족하고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봉사하며,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현재 교회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주로 청년 단체에 들어가 활동을 하거나 성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들이 단체에 들어가거나 성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신앙생활 여부에 교회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의 교회를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열심한 신앙인들이 되고 교회를 책임질 미래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복음화의 일꾼으로서 육성되어야 교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젊은이의 신앙생활’ 의안은 “젊은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그들이 교회의 꿈나무들로 커갈 수 있는가?” 하는 길을 찾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가르치신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 2. 새 천년기를 위한 수원교구 복음화 ‘설계도면’ 과 ‘건축시공’

수원교구는 지금 제1차 시노두스를 개최하고 있고, 그 본 회의 시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 본 회의 시기는 지금까지 본당과 수도회, 단체들 차원에서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만든 두 의안을 지구 차원에서 그리고 교구 차원에서 검토하고 침착하여 교구의 복음화 정책과 방침으로 정해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001년 중순경부터는 시노두스를 통하여 나온 결과문을 수원교구민 모두가 함께 실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수원교구는 21세기를 맞아 주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사회가 바라는 복음화를 실현시켜 가고 이로써 새 천년기를 맞는 교회로 탈바꿈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수원교구의 2001년은 새 천년기 복음화를 펼치기 위하여 훌륭한 '설계도면'을 그려내는 해이고, 함께 만든 설계도면을 따라 '건축시공'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건축에 있어서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잘 아는 바입니다. 따라서 수원교구 성직자·수도자·평신도 지도자들은 '설계도면'을 완결시키는 장(場)인 교구 시노두스 본 회의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한편 비록 설계도면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시공을 안한다면 그 도면은 안(案)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시공을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수원교구 성직자·수도자·평신도 여러분은 '설계도면'을 그리는 일과 '건축시공'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까.

수원교구는 제1차 시노두스 본 회의를 통하여 두 가지 의안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함께 결론에 이르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하고 겸손을 다하여 서로를 들으며 긴 회의 시간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는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노두스 결과문의 실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정신과 교구민의 자세는 교구 시노두스 결과문 실현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함께 결정하였으니 함께 실현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시노두스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따르는 것이 민주시민의 기본자세이고, 교구장이 교구민들의 모아진 의견을 듣고 선포한 것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요 교회 정신입니다. "남과 함께 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참 그리스도교 신자이고, "남을 위하여 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교구민 전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미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죄 많은 지상 교회이지만 다른 한편 "거룩한 교회"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수원교구 형제 자매 여러분!

1996년 전임 교구장님께서 사목교서를 통하여 교구 시노두스를 개최하시겠다고 발표하신 후 지금까지 교구 시노두스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노두스를 마무리하기까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힘을 모으고 인내를 키워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한 길을 함께 실현시켜 나갑시다. 저는 교구장으로서 제1차 수원교구 시노두스의 성공적 마무리와 결과문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이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칩니다. 그러므로 제1차 수원교구 시노두스가 성공적으로 끝나칠 수 있도록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참여합시다!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들은 시노두스 본 회의에 적극 동참하여 교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실천합시다!

시노두스 결과문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함께하여 교구민 모두가 수원교구의 멋진 미래를 일구어내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시기를 빌고, 교구 시노두스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모 마리아께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 새 시대 복음화 여정

첫해 : 선교 영성의 해

- 선교의 기초인 자기 희심과 쇠신 -

김 지 석 야고보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은총의 대회년을 지낸 우리는 새로운 시작처럼 새 천년기의 첫해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우리 생활 안에서 체험하며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심화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화를 시작으로 공동체적이고 나아가 세상 전체의 성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로써 요구되는 우선 조건은 모든 이가 하늘나라의 신비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일, 곧 복음선교입니다(교회의 선교사명 13항). 복음선교는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라는 말씀에 따라 교회의 존재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대회년을 경축하며 한국 순교자 축일에 교구 선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순교로 자란 신앙 선교로 열매 맺자”는 표어를 내걸며 각자의 삶 안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순교적 행위가 곧 선교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이들에게 선교 사명을 일깨우고자 하는 해였습니다.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새 천년기의 문턱을 들어서 우리는 시대의 엄청난 변화를 예측하며 새 시대의 복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교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중단없이 수행해야 할 선교사명이지만 앞으로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는 2005년까지 중장기 선교 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효과적인 복음선교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2000년 대회년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새날 새삶’ 운동을 펼치며 “나부터 새롭게 · 참된 가정 이루기 · 좋은 이웃 되어주기 · 함께 가요, 우리”라는 네 가지 기본적 차원의 실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대회를 지내기 위한 준비운동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신앙 실천운동입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이 기본 틀에 선교운동을 도입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모두 동시적 실천사항이면서도 한 해에 한 틀씩 강조하며 단계적으로 성화의 범위를 넓히려 하는 것입니다.

첫해는 '선교 영성의 해'로 복음선교를 위해 먼저 선교사명 안에서 참된 영성을 발견하는 자각 단계입니다. 둘째 해는 '복된 가정의 해'입니다. 즉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복음에 맞들이며 자녀들 특히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되도록 복음적 환경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해는 '복음 안에서 이웃과 함께'로 정하고 복음정신으로 이웃을 섬기고 좋은 이웃이 되어줌으로써 이 사회를 복음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입니다. 넷째 해는 '그리스도께로 향한 세상 만들기'로 민족의 복음화와 온 세상을 향한 선교사명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심고자 합니다.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는 다섯째 해에는 '복음 안에 하나되는 교구 공동체'로 성서에서 충만을 나타내는 40이란 숫자의 의미를 근거로 충만과 완성을 향한 교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일치된 교구의 모습을 구현하고 복음선교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영성의 해'를 맞으며 당부하고자 합니다. 영성이란 하느님 섬김이며 영성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교회의 선교사명, 88-89항).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복음선교였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본 영성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라면 누구나 복음선교를 빼놓고 영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목자와 사도직 종사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선교로부터 영성의 기초가 주어진다든 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도, 예비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순간부터 복음선교의 사명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교회의 선교사명 90항).

또한 사목지침에 부합하는 선교방안도 함께 연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역사적 지리적 환경과 지역 문화와 연결된 선교방법도 찾아내야 합니다(현대의 복음선교 40항). 타교구, 타본당의 좋은 사례들도 수집하여 활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선교를 위해 먼저 자신이 정화되고 쇄신되는 일입니다(요한 3:5; 2고린 4:16). 선교는 인간적 기술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닦지 않은 얼굴로 밖에 나서기 어렵듯, 매일 새로워지는 생활 속에서 선교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서를 묵상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생활 속에 선교의 영성은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새 시대의 복음화 여정 첫해를 시작하며 단계적 복음선교 계획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지역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복음적 삶의 터전을 만들도록 성령께 의탁하며 다함께 몸과 마음을 모읍시다.

##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희 바오로 대주교



그리스도 예수 강생 2000년의 대희년을 맞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3천년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성자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대구대교구는 시노드를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우리의 삶을 가다듬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더욱더 공동체적이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또한 모두 함께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올해에도 이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공동체에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일미사뿐 아니라 매일 미사에도 자주 참례하도록 권장하고, 함께 바치는 기도(성무일도)에도 가능한 한 많은 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공동체는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본당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신자들의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당 공동체 산하의 여러 모임들이 활발해져야 하고 본당신부를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구 시노드는 본당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본당의 평의회들과 위원회들, 그리고 각종 단체와 지역 모임들에 이르기까지 그 고유의 기능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대를 시작하며, 우리는 지난날의 교회생활같이 안이하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뿐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복음화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2001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구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그리고 모든 가정과 본당·기관 공동체에 은총과 평화를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대회년을 '새로운 복음화의 해'로 정하여 우리 신앙을 이웃에 전하는 선교적 삶에 충력을 기울였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마르 16.15)는 말씀을 실천한 결과, 본당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이웃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두루 퍼는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실로 많은 형제들을 하느님의 품안으로 영접하였고, 그 사실을 본당 순방 때마다 확인할 수 있어서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렸습니다. 2000년 대회년, 참으로 은혜로운 해를 보내면서 그 동안 수고하신 교구민, 수도자, 사제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드립니다.

정 명 조 아우구스티노 주교



한편, 우리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알찬 계획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은 '새로운 복음화'의 큰 방향 안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의 복음화에 주력하여 내적 영성을 키우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주제를 교구의 사목 방향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먼저 교구민 여러분에게 강조

하고 싶은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복음화를 위한 계속교육'입니다. 신자로서의 배움은 특정 기간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계속교육을 통해 우리 각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원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사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개인 각자는 성서를 항상 가까이하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또 전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고 느끼기 위해 열심히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삶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까. 본당별로는 특별히 올해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한 가지 선정하여 본당 사목계획에 포함하기를 권고합니다. 또 본당에서는 특정 전례주년이나 성월에 맞추어 강연이나 교육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도록 하십시오. 참가 인원이나 경제적 여건에 맞추어 지구별 운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구 차원에서는 신학원, 평신도 사도직 신앙학교, 반장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널리 홍보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신자 계속교육의 열쇠는 무엇보다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입니다. 여러분이 외면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효과가 없으며, 지속적 성장이나 영적 쇄신도 불가능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계속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성 생활화를 위하여 주일미사는 물론 평일미사 참례와 기도생활을 권고합니다. 미사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과 성체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을 뛰어넘어 자신의 실체를 만날 수 있고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은 계속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하느님께 대한 생각은 기도로써 하느님과의 관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제멋대로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도 특히 묵상기도가 없는 계속교육은 체험되지 않는 기도로 머물기 때문에 공허할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교육과 기도생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함께 실천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두번째로 '사제 평생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사제들의 평생 교육의 목적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을 생생하게 간직하십시오."(2 디모 1.6)라는 성서 말씀대로, 성품성사에서 받은 은혜의 불이 꺼지거나 시들지 않고 언제나 새롭게 피어나도록 하고, 사제생활을 통해 인간 성숙에 이르게 하며, 교회와 사회에 예수 그

리스도처럼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한국 주교회의의 '사제 평생 교육 위원회'에서 이미 사제 평생 교육을 위한 준비를 전국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교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하여 이를 준비,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차별 사제들의 사목직 수행의 단계와 사목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제 평생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제의 안식년 기간이 단순한 휴가의 의미를 넘어 직접적 사목 직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소에서 영적, 사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이 사제 평생 교육에 대해, 신자 여러분은 사제들의 지속적 교육이 사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여 새 사제를 양성한다는 자세로 관심과 기도를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장애인, 실직자, 도시 빈민, 행려자, 독거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등 그 외에도 소외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아예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이를 사랑으로 감싸고 보살피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오는 사회적 장애라고 합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쓰다 남은 것만을 애급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뭇에서 나누어주어야 한다."(사목 현장 88항 참조)라는 가르침을 명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외된 이들이 동등한 이웃으로 인정받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을 위한 복지의 궁극 목표인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본당에서는 그들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위해 시설 등 여러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다양하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 신자수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회의 기대가 큰 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교구나 각 본당은 지역사회와 접촉이 미약하며,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회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당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봉사의 영역으로 삼아야 합니다. 각 본당이 지역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본당의 공간과 시설, 다양

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당은 또 지역사회가 별이는 활동이나 어려움 등에도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신자들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준비시켜 주는 것 또한 본당의 할 일입니다. 신자들의 계속교육이나 예비신자 교리교육 내용에도 사회와 교회의 올바른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친애하는 교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한 해 동안 본당 사목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새해도 '새로운 복음화'는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복음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복음 선포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제들은 "사제의 첫째 의무는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임" (사제 직무 교령 4항 참조)을 명심하고, 거창한 계획보다 본당의 여건에 알맞게 작지만 알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고 평가함으로써 앞날을 준비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거니와, 교회의 앞날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 청소년들의 선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쌓이고 모이면 화합과 통일의 그날도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 “예수님과 함께” 선교하는 가정

장 봉 훈 가브리엘 주교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

1. 2000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먼저 우리 민족과 교구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은총의 대회년에 우리 민족에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50년 분단 이후 화해와 일치의 새 지평을 여는 이산가족의 눈물어린 상봉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에도 큰 은혜를 주시어 일곱 분의 새 사제와 5,676명의 영세자를 맞이하면서 강서 성당(5월 14일)과 이월 성당(10월 3일), 그리고 광혜원 성당(11월 1일)을 봉헌하고 금왕 성당을 새롭게 단장(8월 15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와 청소년 사목을 위하여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 교구가 ‘전국 가정대회’를 준비하고 주관하면서 ‘모자보건법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더욱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교구 공동체가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였고 특히 124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에 교구 공동체가 보여준 헌신적인 투신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 이제 2001년은 새 천년기의 원년이고 대회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발돋움의 해입니다. 신유박해(1801년) 순교 200주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각 가정은 순교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생활 속에 용감히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01년이 우리 교회와 민족 전체에 참다운 해방과 기쁨을 더욱 펼쳐나가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는 자신의 지위나 명예는 물론이고 집과 가족마저도, 아니 목숨마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픔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가정 안에서 뿌리내려, 삶으로 증거되고 선포되어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새해를 주님께 봉헌하며, 이 뜻깊은 ‘가정복음화의 둘째 해’를 ‘예수님과 함께 선포하는 가정’의 해로 정하며 가족 모두가 순교자들의 열성을 본받아 복음의 선포자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 가족 모두가 선교사

3.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선교는 교회의 첫 사명입니다. 가정 또한 작은 교회이고 가정교회의 첫 사명 역시 선교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생활 형태는 가정생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가정생활의 모범과 증거로써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것이 부부의 고유한 성소요 평신도 사도직의 요체(교회 헌장 35항 참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선교활동에서 자기 몫을 떠맡아야(교회법 제781조 참조) 하고 가족 모두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족은 먼저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분의 말씀이 담긴 성서나 신앙의 유산들을 가까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박해 중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을 키워주는 서적들을 소중히 여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그 시대 그 지역의 문화와 삶을 복음의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정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체험하며 그분의 좋으심을 친척이나 이웃에게 힘써 전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시대의 어두움을 직시할 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의식은 물론이고 공동선 증진과 인간존엄성 회복운동, 인간생명권 수호운동,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운동 등도 ‘예수님과 함께’ 가정이 선포해야 할 내용입니다.

### 가정 사도직을 조화롭게

4.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직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직은 파견과 관련이 있고, 사도직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자비롭게도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강생은 바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하느님의 파견이요, 하느님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파견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사제요 예언자로서, 그리고 참된 왕으로서 당신의 사명을 기꺼이 수행하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신자 모두는 바로 주님의 사도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의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도들입니다. 나자렛 성가정이 인류 구원에 함께 참여하였던 것처럼 우리 각 가정도 자신의 가정은 물론이고 이웃, 친척들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 사도직을 조화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사제직, 예언자직, 그리고 왕직을 제대로 이해하고 조화롭고 항구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본연의 가정 사도직을 조화롭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각 가정이 자신의 사제직부터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가정기도는 물론이고 성경 읽기 등을 통하여 가정 성화를 위한 사제직을 성실히 실천한다면, 가정 예언자직이나 가정 왕직 즉 선교나 봉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그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기도와 복음 선포는 물론 이웃의 어려움을 기꺼이 함께하는 봉사에 남달랐습니다. 이제 우리 각 가정도 나태하거나 편향된 신앙에서 벗어나 사제직과 예언자직, 그리고 왕직을 조화롭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 주일은 신앙인의 뿌리

5.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날입니다(주님의 날 2항, 7항 참조). 그러므로 작은 교회인 가정들이 본당에 모여 주님의 날을 경축하고 주님의 성찬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177항 참조). 주일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종합이며 올바른 그리스도인 생활의 실천조건이기도 합니다(주님의 날 81항 참조). 따라서 세례를 받은 신자가 주일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습

니다(주님의 날 81항 참조).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주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주일 미사를 소홀히 하다보면 머지않아 긴 냉담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도 신앙의 뿌리 없이는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신앙은 본래 하느님 중심의 삶이니만큼, 신앙인이 주님의 날인 주일을 소홀히 하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박해의 위협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가정들도 매주 부활을 기념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구원의 선포자와 사랑의 문화 건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주님의 날 87항).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6. 교회는 복음화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새로운 복음화의 토대인 가정 복음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발전은 바로 가정 복음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구 공동체 모두는 2001년 새해를 하느님께 봉헌하며 '예수님과 함께' 선교하고 기도하며 봉사함으로써 가정 사도직을 정성을 다하여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요셉과 더불어 한국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께 모든 가정과 민족을 봉헌하여 맡겨드리며, 새해에도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온 누리와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선교(가족·이웃)의 해

“예수께서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마태 4.23).

박정일 미카엘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새날 새삶”을 다짐하며 설레임과 기대로 맞이했던 대회년에 우리는 밀레니엄 세례식과 교구 동시 선교, 평신도 교리교사 양성과 각 단체의 크고 작은 대회년 행사 등 은총 속에 바쁘고 활기찬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대회년의 은총을 듬뿍 안고 21세기의 첫해인 2000년 ‘새날’을 맞이하여 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고장 복음화를 위해 힘차게 ‘새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대망의 새해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마산교구에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 선교의 해

때마침 우리 교구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감격과 함께 5년 후인 2006년에는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 복음화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지난해부터 2005년까지를 ‘선교의 해’로 정하고 온 교구가 복음 선포에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 그 두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첫해인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구는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의 성의 있는 노력에 힘입어 선교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의 경험을 되살려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선교의 대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 구원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

라.”(마르 16.15)고 명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역량과 여건하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전교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당신의 고향 갈릴래아에서부터 복음선포를 시작하셨습니다(마태 4.12-17; 마르 1.14-15; 루가 4.14-15).

이에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든 계층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해마다 그 해의 특정한 대상을 정하여(가족, 이웃, 청소년, 소외계층, 직장, 농어촌 등) 교구가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선교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해인 올해에는 “가족과 가까운 이웃”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선교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 가족과 가까운 이웃 선교

지난해 교세 통계를 보면 마산교구 신자 가정의 26.72%(1500세대)가 남편 혹은 아내 혼자, 또는 자녀들만이 신자인 소위 ‘짜교우’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쉬고 있는 신자가 있는 가정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자 아닌 가족에게는 신앙을 전해주고,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가족을 권면하여 착실한 신앙의 길로 되돌아오게 하는 가정 선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에 따르면, 가족들의 고유한 성소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부부는 가정 안에서 서로 상대방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과 사랑을 증거할 고유의 성소가 있다.”(35항 참조)고 못박고 있습니다. “고유의 성소”라 함은 하느님께서 ‘본디부터 맡겨주신 성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고유의 성소’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없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가 이웃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가족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가정 선교’는 가족들의 가장 큰 사랑의 의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선교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열심히 선교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순서를 뒤바꾸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 실천은 가까운 데서부터’라는 우리의 대명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족들이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써 같은 인생관과 가치관, 같은 영생의 희망을 가지고 현세를 산다는 것은 가정의 일치와 평화, 행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경험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남음이 있습니다.

가정 선교에 이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은 가까운 친척 친지들과 한 마을 또는 한 아파트에 사는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자연적 질서와 여건에 순응하는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선교하는 것이 소공동체 운동의 요체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시금 소공동체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 선교하는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교회 헌장 11항, 평신도 교령 11항, 가정 공동체 49항 참조). 교회의 첫째 사명이 복음 선교라면 '작은 교회'인 모든 신자 가정은 마땅히 교회의 이 선교 사명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은 "평신도 사도직의 실천과 사도직을 배우고 연마하는 훌륭한 도장"(교회 헌장 35항 참조)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신앙을 키우고 사도직을 배우며 온 가족이 복음 전파에 나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짜교우' 가정이나 쉬는 가족이 있는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가정 선교의 중점을 두는 올해에 우리는 '짜교우 가정 없애기'와 '가족 중 쉬는 교우 없애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구 내 모든 가정들이 온전한 '작은 교회'가 되고 선교의 도장이 되어 선교 일선에 나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복음화의 장래는 대부분 가정교회에 달려있다."(1979년 제3차 중남미 주교회의의 연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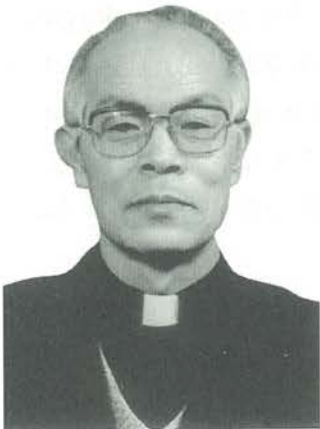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21세기 새 시대는 크나큰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파괴되어 가는 가정의 복음화, 속화되어 가는 사회의 복음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새 복음화"의 크고 어려운 과제를 앞에 놓고 우리는, 그 동안 '새날 새삶' 운동으로 다진 우리 자신을 다시금 추스르고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태 28.20). 그리고 성령께서는 항상 교회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시는 어머니이시며 한국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모님과 한국의 성인 성녀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세상 복음화를 위해 온 힘을 다 바치려는 굳은 결의와 더불어 천상 은총의 도우심을 믿으며 힘차게 새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구에 하느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천년을

교구장 직무 대행 김 옥 태 레오 신부



2000년 10월 9일 교구장 박석희 이나시오 주교님의 갑작스런 선종으로 우리 교구 신자들은 참으로 많이 놀랐고 슬픔 또한 컸습니다.

그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전 신자들은 한 마음으로 주교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 박 주교님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실 때 강조한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시고 새 하늘 새 땅을 기다리며 성찬에 초대받은 사람답게 사십시다.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요 징표인 성찬례를 중심으로 생명과 환경을 살리고 이러한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제물이 됩시다”(2000년 교구장 사목교서 요약).

이는 10년 간 우리 교구의 목자이셨던 고 박석희 이나시오 주교님의 사목지침이었습니다. 2001년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고 교인이 직접 쓰신 ‘2000년 대회년 교구장 사목교서’를 교구민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훗날,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실 박석희 이나시오 주교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주교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1.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2000년 대회년을 잘 맞이하기 위하여 개인과 가정, 본당과 교구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한밤중에야 도착한 신량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처럼(마태 25.1-6) 제 각기 자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대회년을 기다

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구세주 강생 2000년 대희년을 맞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 자녀로서 창조주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살게 된 것도 참으로 복된 일인데 그리스도 강생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2000년 대희년을 계기로 한 세기가 아니라 한 천년대가 바뀌는 시점에서 있습니다. 제이천년기를 보내고 제삼천년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는 지난 과거의 모든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뉘우쳐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에 교구 사제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천년을’ 2000년 대희년의 우리 교구 삶의 지표로 정하였습니다.

####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2.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려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항상 새롭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릅니다. 유한한 인간과의 만남이 아니라 무한한 하느님의 아드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그분은 커집니다. 그분께서는 아무리 만나고 또 만나더라도 한없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유일한 구세주이시요, 그분 홀로 하느님을 계시하시고 하느님께로 만민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교회의 선교 사명 5항). 새로운 천년기가 열리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인류 역사의 목적이요, 역사와 문명이 갈망하는 초점이며 인류의 중심이고 기쁨이며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께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요한 14.6)고 하셨습니다(사목 현장 45항).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3. 우리는 지금 새 천년을 맞이할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은 변하지 않으시면서 인간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변하는 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히브 13.8). 항상 변화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진정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새롭게 되면서도 세상 변화에 두려움 없이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역사와 문화, 기술은 항상 변합니다만 인간이 갈망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러한 모든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으시며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입니다. 역사의 중심이요 불변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은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 새 하늘 새 땅과 성찬례

4.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살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서 나옵니다. 이 생명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자연의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자연의 생명에 귀의함으로써 인간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인간과 자연 생명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노라”(요한 10.10).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 6.34-35).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은 곧 당신 자신입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빵은 오늘도 “성체성사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원천으로 인류에게 계속 내어주십니다”(제삼천년기 55항).

5. 생명 존중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 보존 운동은 언제나 성찬 거행에서 시작하고 힘을 얻어야 하며, 이 운동을 전개하는 인간 역시 성찬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쇄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빵과 포도주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며 이 힘에 의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쇄신되고 변화될 것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43항 참조). “성찬례는 정의가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요 분명한 징표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405항).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 거행과 참례를 자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이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일 중에 미사 참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의 성체를 신앙으로 모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성찬 거행은 피조물의 마지막 쇄신입니다. 미사를 통하여 회개하고 쇄신되었다는 표징들은 우리 삶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해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곳에는 항상 이 표징이 드러나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곳에도 이 표징은 드러납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묵서 21.5).

## 성찬에 초대받은 복된 사람들

6.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이 성찬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위하여 “나는 어떤 신자가 되고자 하는가? 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본당은 어떤 본당이 되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성찬례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초대하시는 이 성찬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초대를 받고도 아직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이 잔치에로 인도해야겠습니다.

성체성사는 복음화의 원천이며 절정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사랑의 힘으로 일상 양식을 천상 음식으로 변화시키시듯이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천상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화 운동이고 선교 활동이며 동시에 생명과 환경을 위한 운동입니다.

7. 우리 삶의 터전이며 성화의 터전인 안동교구는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로 사목활동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사제와 수도자, 본당의 모든 신자들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는 농촌이라 전교하기가 힘들다’면서 쉽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구 현실 속에서 선과 아름다움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 사는 우리 교구민들은 전통적인 삶과 따뜻한 인정, 단순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정과 단순한 마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옥한 터전입니다.

예비신자의 수가 줄고 전교가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동교구에 소속된 것은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우리는 불림을 받았습시다. 신자의 수나 질을 논하기 전에 우리의 성소를 먼저 생각합시다. 가톨릭 신앙을 선포하라는 말씀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간단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선교에 대한 얼마나 의미있는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제안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과 열성,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해 당신 구원사업을 계속하시고자 하십니다.

8.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인간의 이기심을 조장하면서 인간 개인의 품위나 가치를 무시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차원에서 선교가 어렵다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대중문화의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도 개인의 차이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품위와 차이를 존중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전통을 타고난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진정한 한국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변화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성체성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참된 토착화입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어른을 존경하고 친구들 사이에 신의를 지키고 국가에 충성하는 이 모든 가치들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일치시켜 하나되게 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을 성찬에 초대하고 우리 문화도 성찬에 초대함으로써 함께 ‘복된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생명과 환경

9. 성체성사의 해인 2000년 대회년을 우리 교구는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해로 정했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운동이 곧 환경보전운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명운동과 환경보전운동은 하나입니다. 산업 발전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하지만 자연 환경의 파괴로 오히려 인간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오래 전 선각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그 동안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생명과 환경보전운동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운동을 언급하는 것은 성체성사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 “당신 제물이 되게 하소서”

10.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교구 내 모든 신부님들과 안동교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수녀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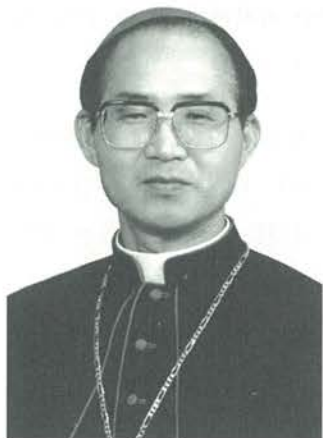
우리 자신부터 먼저 성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터전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길이며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우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셨습니다”(성찬기도 제3양식).

이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신앙고백을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천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요한 6.68)

##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이 병 호 빈첸시오 주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제삼천년기의 첫해가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시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지난 삶에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고 좋은 것만 남아서 미래를 밝혀주고 더욱 풍요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손길 아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의 역사에서 일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보람이라 할 것입니다.

1. 우리는 여러 해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작년에는 대회년을 지냈습니다. 교회생활 안팎을 돌아보며 반성할 것, 노력할 것, 실천할 것 등을 깊이 있게 살피가며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에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의 슬픈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향해 새로운 역사를 꾸며가기 위한 큰 걸음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대회년의 정신에 가장 걸맞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모처럼 시작된 이 움직임이 좋은 결실을 맺어, 마침내 민족이 화해하고 나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한 대회년은 한 해 동안만 그 의미를 묵상하고 실천하고 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히브 13.8)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회년을 기해서 묵상하고 반성하며 설정해 놓은 방향을 두고 앞으로도 여러 해 동안 더욱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

미 '대회년 특별 사목교서' 첫머리에 우리는 이렇게 밝혀두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0여 년 전부터 이 대회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만큼 이 대회년은 2000년 한 해 동안만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를 준비해 온 기간에 해당하는 한 세대 동안,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추는 빛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2001년에도 우리는 '대회년 특별 사목교서'를 그대로 이어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과거 여러 해 동안 우리 교구의 사목적 노력에서 밑바탕을 이루어왔던 '성서 사도직' 분야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 교회 안에 실로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체를 공경해 왔듯이 성서 또한 공경해 왔다. 특히 전례 안에서 교회는 하느님 말씀의 식탁과 그리스도 성체의 식탁에서 생명의 빵을 취해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왔다. 교회는 성전과 함께 성서를 그 믿음의 최고 규범으로 받들어 왔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성서는 하느님의 감도하에서 결정적으로 기록된 이후, 변함없이 하느님 자신의 말씀을 건네주며,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통해 성령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그리스도교 자체를 먹여 기르고 인도하듯이, 교회의 모든 설교를 또한 먹여 기르고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성서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느님께서는 넘치는 애정을 가지고 당신 자녀들에게 다가오시어 다정히 속삭여 주신다.

과연 하느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과 능력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어서 그것이 교회에는 의지처와 힘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영혼의 양식, 영성생활의 깊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 그래서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히브 4.12), 인간을 '완전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으며 모든 성도들과 함께 유산을 차지하게 할 수 있다' (사도 20.32; 1테살 2.13)는 말씀은 그대로 성서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계시 현장 21항).

공의회가 폐막되고 한 세대가 지난 오늘날 그 동안 교회생활 안에 이루어진 변화를 돌아볼 때 우리는 새삼 놀라움과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나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나 간에, 이제 성서는 많은 신자들의 삶에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변화와 은총의 물결이 충분히 가 닿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사제, 수도자,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당신 백성의 영혼 속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은 어떤 한 해만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할 우리의 첫째가는 과업입니다. 어린이 교육에서 중등학생들을 위한 교리,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서가 그 바탕이 되도록 하고, 강론이나 다른 모든 신자 재교육 과정에서도 성서를 기본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3. 또한, 금년은 우리 교구에서 신앙의 선조라 할 유항검 아우구스티노와 그 가족, 특히 동정 부부 등 신유박해 때에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하신 분들의 순교 2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오늘에 되살리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실상 호남의 사도로서 당대의 대부호였던 유항검님은 복음을 받아들여 널리 전하는 일에 재산을 아낌없이 희사하였고, 신자들끼리 사제를 정해서 그 역할을 한 일이 잘못되었음을 맨 처음으로 깨달아 이를 지체없이 바로잡게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아들 유중철 요한은 이순이 루갈다와 함께 동정부부로서 순교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다블뤼 주교의 표현대로, “한국 순교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신앙 선조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교구는 한국 최초의 자치 교구라는 자부심과 함께 가난하면서도 자립심이 강한 신자 공동체와 성직자 수도자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훌륭한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선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미리 준비해 주셨던 땅은 세월과 함께 그 가치가 불어나 근래에 이르기까지 성당 부지의 구입 등 큰 일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늦은 감이 있는 대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세대가 당대의 과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역사는 창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앞서 가신 분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서서히 증가하는 사제의 수와 새로이 펼쳐지는 주변 환경이 요구하는 대로 적절한 사목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구청사의 신축, 홍보매체 시대에 부응한 방송국 설립, 더욱 적극적인 성소 개발과 육성 등을 위한 기반 조성, 청소년 교육을 위한 시설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 할 수 있는 노력과 정성을 하나로 모으면 우리는 이를 어렵지 않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새 천년의 첫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채택한 ‘2000년 전주교구 대회년 기도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구민의 기도문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거기 나타난 정신에 따라 각자 자신을 닦고, 신앙인으로서 불리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로운 일인지를 깨달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빛과 힘을 간청합니다.

## 교회와세상 안에서의 가정생활

김 창 렬 바오로 주교



주님 안에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은총의 대회년이라는 2000년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가 담긴 이 무상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자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특별히 회년을 보내며, 교회는 사회와 교회의 안녕이 바로 건전한 가정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명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며 우리의 미래가 달린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하느님 계획 안에서의 가정

1. 하느님께서 가정은 생명을 봉사하며 지속적으로 사회를 형성하고 또 육성해 나가도록 섭리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천지 창조 때 인간을 당신 모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사랑의 일치와 소명, 능력,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인간의 기본 소명이며 타고난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 중에서 가장 보편적 행위는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부부애의 계약인 결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하느님께서 친히 의도하신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가정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세우신 자연 제도요 사회의 기초인 동시에 신성하며,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을 적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성장시키는 장소가 됩니다. 이에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의 협력자인 부부를 통하여 가정은 생명 문화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백주년 39항).

그러므로 가정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생명과 사랑의 요람이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자리이므로, 인간의 이기주의·빈곤 상황·소비주의와 향락풍조·폭력 등이 그 생명의 샘을 말려버리려고 위협할 때 최우선적인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평신도 그리스도인 40항). 그리하여 창조주 하느님의 사랑의 협력자인 부부를 통하여 가정은 생명문화의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백주년 39항).

2. 결혼과 동정 혹은 독신은 하느님과 사람들의 계약의 신비를 표현하고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결혼이 존중되지 않으면 성화된 동정이나 독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결혼을 모욕하는 사람은 동정의 영광도 감소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부부의 일치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일치, 즉 인류의 구세주로서 사랑과 아울러 자신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인류를 당신 몸에 일치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감수하신 희생을 통해 하느님께서 창조 때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부여해 놓으신 그 계획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부부가 살고 참여하는 것이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들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일을 교회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가정 공동체 13항).

독신과 동정이 육체적 출산력을 포기함에도 영성적으로는 결실을 많이 내어, 많은 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가족을 현실화하는 데에 협력하는 것이라면, 육체적 불임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은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모든 선의가 정상적인 가정과 부부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자신들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세상 안에서의 가정

1. 오늘날 가정은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역사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인식, 여성의 지위 향상, 책임있는 출산과 자녀 교육 등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 가치가 붕괴되는 혼란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들의 이기주의, 물질주의, 이혼, 인공피임과 불임수술, 낙태, 가정 내 폭력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조 저변에는 왜곡된 자유 관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릇된 인공피임은 부부의 참사랑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성윤리의 타락과 낙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이라 할 생명의 경시 풍조에서 자행되는 이러한 태아의 생명권 침해는 곧바로 가정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이나 가정 안

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은 사회의 대표적인 폭력의 하나이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범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가부장제도와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불임여성,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여성, 미혼모들의 남다른 애로와 고통이 늘어나고 있고, 핵가족화로 소외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1994년 주교단 사목교서).

2.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봉사하도록 '가정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교 신자 가정에서조차 대중매체에서 오는 압력을 받으며, 이러한 세계에 살면서 언제까지나 어떤 기본 가치의 오염에 감염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면서 가정문화에 대한 비판적 양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가정을 건설하는 데에 능동적인 역군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정 공동체 7항).

그러기에 그 동안 교회의 본당 사목자들은 물론이고 수도자들 그리고 평신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는 가정을 위하여 청소년 신앙교육과 순결교육, 선택 프로그램, 가나혼인 강좌, 자연가족계획법, 부부일치운동, 미사 전례 중의 강론과 교리교육 등 모든 기회에 혼인 성사와 가정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해 왔습니다.

3. 그럼에도 가톨릭 신자와 다른 교단의 신자 사이에 맺어진 혼종 결혼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념이나 실천적 이유로 단지 사회결혼식만을 선호하는 신자, 교회결혼을 배척하거나 적어도 미루는 가톨릭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은 하였지만 유효한 결혼유대는 갈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재혼을 거부하면서 가정의 의무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에만 전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혼자들을 돕고 그들이 자신들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염려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사목자와 전 신자 공동체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혼한 사람들이 보통으로 가톨릭 종교예식이 없는 재혼을 지향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을 구원에 인도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상, 혼인성사를 한 번 받았다가 재혼하려는 사람들을 재주껏 하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 무효 사유가 없는 한 재혼하는 이혼자를 위하여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그 외 어떤 종류의 예식도 집행하기를 거부합니다.

4. 이런 이유가 아니라도 양적으로 비대해지는 한국교회 현실 안에서 점증되는 냉담자의 수와 성사생활의 감퇴 현상과 기복신앙의 절충주의적 발로는 우려할 만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톨릭 신자로 자처하면서도 현실적 이익을 위하여 미신과 타협하고서도 부득이한 일이라고 자위하는 신자도 비일비재하며, 교적상 신자 총수의 3분의 1이 냉담자 내지 행방불명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정 안에 열심하다는 부모 아래에도 직장이나 공부를 이유로 자녀들이 냉담하거나 성사생활을 소홀히 하고, 혼종 혼인이나 분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부모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자라서 스스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이유로 씩어 없어질 세상에서 온갖 좋은 음식과 물질을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애쓰면서도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영생을 보장하는 풍요로운 신앙을 유산으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인 가정의 역할

1. 먼저 우리 가정은 생명을 지키고 성장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를 향상시키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모든 가치들 - 사랑과 정의, 생명과 인권 존중, 자연과 환경 보호 등 - 이 가정에서 솟아납니다. 자연을 지배하면서 현대인이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새롭고 더욱 좋은 인간성을 창조할 희망을 줄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더욱 큰 불안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생명을 반대하는 정신, 예컨대 삶의 질에 대한 인구증가의 위협을 때때로 과장하는 환경론자와 미래학자들의 연구에서 유추되는 일종의 공포심이나, 자녀 수를 정하는 데 부부의 자유를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려는 정보나 기타 권력의 모든 활동을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산아제한이나 더욱 나쁘게는 불임수술과 낙태를 유도하는 모든 힘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 가정은 부부들의 스승이요 어머니인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심없이 하느님과 그 은혜에 대한 자녀다운 신뢰, 잦은 기도, 성체성사와 화해의 성사(고해성사)를 자주 받는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특유하고 결실 많은 사랑의 징표답게 인간의 성(性)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은 인간을 사랑의 선물로 만드는 데에서 가장 심오한 의미가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인 가정은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여 함께 기도하는 작은 교회인 가정은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본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 '혼자 사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는 것'이 독신이나 동정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형태의 사랑과 관심 속에 혼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사회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교회는 자신을 온통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가르치고 있지만 많은 신자들이 신앙과 삶의 괴리감 속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형태의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살도록 부름받은 인간의 기본성 안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가정생활은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모든 사람을 특별히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데에 매진하고,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노인, 병든 자, 마약 희생자, 가정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책임에 따라서 가정에 봉사하는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진심으로 용감하게 협조하라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의무에 충실하고, 삶의 걱정과 시련을 견디어내며 타인의 요청에 개방적이고 관대하며, 이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기쁘게 완수한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도록 호소하십니다.

3.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로 사는 것이나, 가정과 사회에 봉사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인간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간된 도리라면 신앙은 이 모든 것이 진실로 그렇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주며,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의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정은 교회처럼 복음이 전달되는 곳ियो, 거기서 복음이 빛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의식하고 있는 가정에는 모든 가족이 복음선교를 하는 것이고 동시에 복음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로부터 복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다른 많은 가정과 이웃에게 복음선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이러한 가르침처럼, 그리스도인 가정은 믿고 복음을 선포할 소명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복음선포를 행동없이 말로써만 한다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체험으로 아는 바입니다. 복음화된 가정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향기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화된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성령으로 맺는 열매인 동시에 열매 맺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힘은 기도생활로써 충만해지고 새로워집니다.

4. 나는 특별히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도록 권고합니다. 가정기도에는 그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가정기도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가정교회는 가정기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실체가 되며 세계의 변형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사제의 첫번째 본분이 매일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듯이 부모는 가정기도를 하루의 첫 임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의 역사 안에 하느님의 사랑 어린 개입을 감지하면서 아버지의 섭리에 신뢰하는 가정의 본보기를 교회의 희망이며 새 세대인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기울이는 가정기도의 중대한 목표는 자녀들이 전체 교회의 전례기도에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데에 봉사하고, 전례기도를 위하여 준비시키며, 그것을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로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가정기도 때 목주의 기도를 자주 선호하도록 바랍니다. 가정에

서 바치는 목주의 기도는 가정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육성하고 부부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에 특수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이고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 가정과 가정교회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입니다(가정 공동체 61항).

그 밖에 주일과 축일의 미사 성제와 성사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탓으로든 남의 탓으로든, 악으로부터의 유혹이나 게으름에서 신앙의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냉담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는 기도생활을 멀리한 데서도 오지만 특히 성사생활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부족한 탓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성사를 세우심으로써 우리 가정을 혼돈과 어둠에서 구해주시고 든든하게 만드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성인이 되고 신앙의 굳센 증거자가 되게 하는 견진성사를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고 바랍니다. 그리고 늘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귀해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고해성사를 미루지 맙시다. 부부가 서로를 줌으로써 일치되고, 부모가 자기 삶과 피를 나누어 생겨난 자녀와 일치되듯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성체를 정성된 마음으로 모십니다.

### 맺는 글

끝으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 가정에 교황님의 당부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부모가 복음의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은 소명을 식별하고 직면해야 할 희생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성취할 목표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복음의 가치를 맨 처음 체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기도와 성사생활로써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목자들은 시대에 맞고 깊이 있는 준비를 한 후에 가정을 위해 아버지, 형제, 목자, 스승으로서 간단없이 활동해야 하고, 은총으로 그들을 돕고 진리의 빛으로 깨우쳐줌으로써 그들이 복음의 조명 아래서 살도록 도와야 합니다.

나는 축성된 생활을 하는 남녀 수도자들이 각자의 적절하고 고유한 특을 충분히 살면서도 가정 사목을 현대세계의 상황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된 임무로 간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가 반영되고 새 생명이 싹트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이 한 해를 가정기도의 해로 지향하며 전세계의 왕이고 가정의 왕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가나에서 빛과 기쁨과 고요함과 힘을 내려주시던 때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에 현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쇄신

# 선교와 쇄신의 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이 기 현 베드로 주교



친애하는 군종교구 사제, 수도자, 그리고 교구민 여러분!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는 2000년 대회년을 하느님의 은혜 속에 거룩하고 뜻깊게 보냈습니다. 하느님께 머리를 돌리고 하느님의 정신에 우리의 가슴을 묻으며 자신을 돌이켜본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점들을 뉘우치며 회개와 쇄신을 다짐하였습니다.

새로워진 마음이 되어 새로운 천년기를 맞이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러한 기쁨을 주신 주님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여야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구 사목 목표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라는 사도들처럼 주님을 전하고 대회년에 다짐한 화해와 쇄신을 우리들 자신과 병영생활과 본당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 새로운 선교를 지향하며

지난해 모든 본당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여 어느 해보다 많은 세례자를 내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기에 선교활동에 함께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향한 우리의 열정을 드러내는 선교활동은 “나그네길을 가고

있는 교회의 사명이며”(선교 교령 2항) 또한 “선교활동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의 근본적인 임무입니다”(35항).

교회의 본질이며 신자들의 의무이기도 한 선교의 사명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겠습니다. 선교는 사제나 수도자에 맡겨진 일이 아니라 신자들 모두의 일이며, 생활이 그 어느 곳보다 밀착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신앙을 생각해 보기 쉬운 곳인 군대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선교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나 열정은 어떠하며, 선교를 위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회생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함께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 동료나 이웃들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며 선교를 하고 있는지 돌아켜봅시다.

우리는 선교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믿고 살아야 하겠으며 더욱더 내용있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먼저 생각해야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임무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새로운 선교를 위하여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 2차 선교인 재교육

흔히들 군인 신자들은 교리나 성서, 교회 전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들 합니다. 짧은 기간에 걸친 교리로 세례를 받고 신자 재교육의 기회의 부족이나 군인 자녀들의 경우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전 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치 못했던 세례 전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신자임을 드러내고 기도드리는 일은 물론이지만 성당에 찾아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교회 서적이거나 성서를 이용해 스스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신에게 하는 선교입니다.

그뿐 아니라 본당 공동체는 본당 내에 있는 이러한 신자들을 위해 특별한 신앙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고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만 하느님 말씀을 맛들이는 기도운동의 전개도 필요하고 레지오 마리아나 성서모임, 반모임 등은 인원이나 성과에 구애 받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교회의 일이며 사목적인 배려입니다.

### 선교를 위해 본당이 해야 할 쇄신

군종교구 본당들은 구성원들이 군인들과 그 가족 그리고 군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특성상 신자들간에도 계급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종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사를 봉헌하고 한 형제로서 친교를 나누어야 하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개선을 위해 많은 본당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급 대신 세례명 부르는 운동을 전개하는 본당도 있고, 세례명이 쓰여진 명찰을 달고 세례명을 부르며 친해지려 애쓰는 본당도 있고, 사목회나 단체 간부 간에 계급의 구별 없이 운영하는 본당도 있습니다.

새로운 군종교구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냉담자나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군인 성당을 피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본당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본당 공동체는 장래 한국교회나 우리 나라를 위해 소중한 젊은이들인 병사들에게 비중있는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병사들을 위한 선교방안을 본당 공동체가 공동으로 모색하는 일이라든지 병사들을 미사에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맞는 전례를 준비하고 밴드를 이용한 성가를 부른다든지 병사들에게 따뜻한 대접을 해주는 일은 선교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 평협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회장	여 규 태 (요셉)	H)02-763-5535 O)02-376-1501 F)02-305-5212	(우)110-521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아남아파트 301-812 011-480-0601
부회장	김 기 수 (안드레아)	H)02-813-2772 O)02-581-9400 F)02-581-9611	(우)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대호빌딩 301호
부회장 겸 사회교리실천 본부장	마 정 응 (알폰소)	H)053-765-0088 O)011-9595-7707	(우)706-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우방 1차 A. 5-501
부회장	김 기 주 (스테파노)	H)062-681-6667 O)062-360-5867	(우)502-156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30 금호타운 101-1502 011-645-6679
부회장	권 돈 구 (바오로)	H)032-522-4512 O)032-472-1401	(우)403-762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동아아파트 38-803 017-324-4512
부회장	황 재 응 (마태오)	H)031-253-3477 O)031-441-1421	(우)411-09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215-30
부회장	강 형 일 (루도비코)	H)02-542-9962 O)02-2235-9962	(우)100-781 서울시 중구 신당6동 840 현대아파트 7-307 017-205-8225
부회장 겸 복음화 특별위원장	김 영 대 (루도비코)	H)062-227-7128 O)016-608-6004	(우)501-080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100 금호타운 112-1902
부회장	이 광 호 (요셉)	H)02-702-2133 O)02-532-7759	(우)140-120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257
감사	경 한 석 (아우구스티노)	H)043-223-1453 O)043-253-8165	(우)360-2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7-17
감사	오 영 창 (토마스)	H)054-553-2637 O)016-877-2637	(우)745-050 경북 문경시 모전동 264-1 현대아파트 103-405
사무총장	최 홍 준 (파비아노)	H)02-652-5732 O)02-3450-2214 F)02-552-0668	(우)158-053 서울시 양천구 목3동 318-282 104호 019-330-8053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민족화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명 원 (프란치스코)	H)033-252-4283 O)033-254-4283	(우)200-10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64-2 011-9918-4283
기획분과 위원장	김 용 수 (바오로)	H)02-2648-4354 O)018-211-4354	(우)158-752 서울시 양천구 목동 2단지 아파트 203-202
교육분과 위원장	정 동 규 (가브리엘)	H)02-797-8663 O)02-714-0600	(우)140-03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한강맨션 18-202 011-470-6989
국제협력분과 위원장	이 정 희 (베드로)	H)02-815-6857 O)02-961-4862 F)02-967-4029	(우)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60번지 10호
홍보분과 위원장	김 영 걸 (안드레아)	H)02-2299-2296 O)011-279-2196	(우)133-094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4가 1020-1
문화분과 위원장	이 원 복 (치릴로)	H)02-923-1097 O)02-398-5131	(우)136-044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4가 256번지 011-896-1097
청소년분과 위원장	조 한 수 (마리노)	H)02-821-8165 O)02-727-2094	(우)100-021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내 교육국
사회복지분과 위원장	이 흥 균 (요 셉)	H)02-470-3290 O)02-307-8171 F)02-304-8404	(우)134-030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2-3 신호빌라트 1102호 011-317-8171
정의평화분과 위원장	윤 학 (미카엘)	H)02-596-1687 O)02-536-8641 F)02-534-2708	(우)137-04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91 효성빌라 1-102 011-736-8641
도농협력분과 위원장	류 정 목 (사도 요한)	H)02-364-5862 O)016-364-5862	(우)120-013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50-33

##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 평신도에게 베푸신 특은에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서는 일찍이 이 땅의 평신도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꺾이지 않는 용기를 부어주시어

스스로 교회의 터전을 닦도록 하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교회 발전에 앞장서  
자랑스런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 수많은 평신도 순교자를 내시고

이 거룩에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그 거룩하고 빛나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굳건한 믿음과 불타는 사랑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대 평신도의 사명을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늘 새로워지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